



촬영을 위해 잠깐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아동학대 업무를 전담하는 아동보육과 주인공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조인선, 김호현 주무관, 염대석 아동친화팀장, 김도균, 안영숙 주무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임명, 성남시가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호하겠습니다

성남시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며, 잘 배우고 즐겁게 자랄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아동수당과 아동수당플러스,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등은 타 지자체의 모범입니다.

성남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이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려 합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동보호의 공공성을 강화해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호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성남입니다. <관련기사 3면>

NOVEMBER
Vol.304

11

성남시 시정소식지 <비전성남> · 통권 제304호 2020년 10월 25일 발행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Play 스토어'에서
'비전성남' 앱을 무료로 다운받으면
모바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남시 공식 SNS

- 페이스북** facebook.com/seongnamdiary
- 블로그** seongnamdiary.com
- 인스타그램** instagram.com/seongnamsi
- 트위터** twitter.com/seongnamcity
- 유튜브** youtube.com/user/sndi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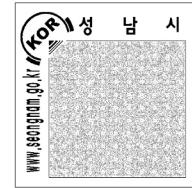
발행 성남시

편집 공보관

주소 13437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콜센터 **성남시콜센터 1577·3100**

홈페이지 snvision.seongnam.go.kr



성남시 실내·외 공공시설 815곳, 10월 12일부터 단계적 운영 재개

실내체육시설은 제외, 시설별 순차적 개방...
이용인원 제한, 마스크착용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



성남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방침에 따라 10월 12일 오후 6시부터 실외체육시설 32곳을 시작으로 총 815곳 실내·외 공공시설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했다.

시는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11일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시설 상황과 방문자 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운영 재개 시설은 경로당,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과 청소년수련관,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포함), 평생학습관, 판교박물관, 생태학습원, 성남시식물원, 성남아트센터, 성남여성비전센터 등이다.

단 밀폐·밀접·밀집도가 높은 실내체육시설과 성남시청 북카페 등 시청사 내 시민 제공시설, 경로식당 등은 제외됐다.

공공시설 운영 재개일은 시설별로 다르다.

19일 평생학습관이 온라인으로 운영 중인 62개 강좌 중 19개 과목의 대면 수업을 재개했다. 바리스타, 제과제빵 기능사, 미용기능사 등 5개월 장기과정의 '배움과 채움' 프로그램 등이다. 경로당은 10월 26일 다목적복지회관 내 15곳만 우선 운영하고, 11월 2일까지 희망경로당 현장 검증 후 370곳을 추가로 운영 재개하게 된다.

해당시설의 이용인원은 수용가능인원 대비 50% 이하 수준으로 제한되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손소독,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입장·이용할 수 있다.

시는 시설별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인 시설 소독을 통해 방역 조치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성남시장은 “추석 연휴기간 중 시민들께서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공공시설을 재개할 수 있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시설 이용 시 입장인원 제한, 출입자명부



기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재난안전관 사회재난팀 031-729-3543

운영일	개소수	시설명
10. 12(월)	101	종합사회복지관(10), 장애인복지관(2), 장애인주간보호시설(1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9), 장애인공동생활가정(13),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일시보호시설(2), 장애인365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한마음쉼터도서관, 율동생태학습원, 수어통역센터, 생활이동지원센터, 성남여성비전센터, 성남가정폭력상담소(9),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성남문화원, 성남문화의집, 성남아트센터 미디어센터, 성남아트센터 회의실(2), 실외체육시설(32)
10. 13(화)	267	판교박물관, 성남아트센터 큐브미술관(3), 환경생태학습원(2), 공원 내 체육시설(73), 반려견놀이터(8),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38), 성남시식물원, 산성공원놀이마당, 공공도서관(15), 작은도서관(125)
10. 14(수)	1	이동노동자쉼터
10. 15(목)	6	성남아트센터 실내공연장(3), 갤러리808, 세계악기전시관(2)
10. 19(월)	45	성남시청년지원센터, 은행골어울터, 노인종합복지관(6), 다목적복지회관(20),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성남이주민센터, 여성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5), 청소년문화의집(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청소년센터(2), 평생학습관, 근로자종합복지관
10. 20(화)	5	책테마파크, 위례스토리박스, 공공예술창작소(3)
10. 21(수)	1	고령친화종합체험관
10. 24(토)	1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10. 26(월)	18	경로당(15), 스마일카페, 민속공예전시관, 서현문화의집
11. 2(월)	370	경로당(370)

성남시 독감 예방 무료 접종, 10월 13일 재개

나이별 차례로 접종

성남시는 10월 13일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무료 접종을 재개했다.

이번 독감 예방 접종에 투입되는 백신은 성남지역 30만여 개를 포함, 전국적으로 2,964만여 개이며, 품질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4가 백신이다.

무료 접종 대상(기간)은 ▲만 13~18세(10. 13 ~ 12. 31) ▲만 70세 이상(10. 19 ~ 12. 31) ▲만 62~69세(10. 26 ~ 12. 31) 등이며 ▲만 60~61세 성남시민, 장애인(일정 미정) 등은 접종 기간이 확정되면 추후 개별 안내한다. 나이별 접종 기간에 지정 병의원을 방문하면 된다. 접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의사 1명당 하루 접종 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한다. 사전 예약 뒤 의료기관 방문 접종을 권장한다.

성남지역 만 40세 이상의 만성질환자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는 11월 10일부터 3개 구 보건소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성남지역 독감 무료 접종 대상자는 36만2,647명이다.

* 우리 동네 지정병원 찾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중원구보건소 031-729-3905, 수정구보건소 031-729-3846, 분당구보건소 031-729-4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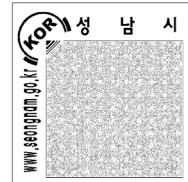
힘내세요! 의료진

[이달의 손편지] 운중초교 학생들의 감사편지 50통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 조심하고,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0월 13일 분당구보건소(소장 함현숙)에 운중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로부터 50통의 정성 가득한 손편지가 도착했다. 코로나19로 의료 현장에서 많은 희생을 하며 도움을 주는 분들께 전하는 6학년 아이들의 감사편지라고 선생님이 전했다. 보건소 직원들은 보건소를 향한 학생들의 진심 어린 응원과 따뜻한 관심에 더욱더 힘이 나는 하루라며 감사해했다.



성남시 아이들의 방패,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4명 배치

아동보호 공공성 강화… 아동학대 조사부터 피해 아동보호까지

취재 김미진 기자 qeen03@hanmail.net



왼쪽부터 조인선, 김도균 주무관, 염대석 아동친화팀장, 안영숙, 김호현 주무관

“지난해보다 올해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늘었어요.”
아동권리 교육과 홍보가 강화되고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신체학대보다 정서학대 의심신고 사례가 늘고 있다.

“신고가 많아질수록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발견하게 되고, 큰 사건으로 커지기 전에 방지하는 안전체계가 확대되는 효과도 있다”고 김호현 시청 아동보육과 주무관은 말했다.

성남시는 아동학대 여부 조사부터 피해 아동보호까지 전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4명을 선정, 시청 아동보육과에 10월 1일 배치했다. 그 주인공은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 김도균, 김호현, 안영숙, 조인선 주무관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해온 공무원이다. 전담 공무원 4명은 염대석 아동친화팀장과 함께 성남지역 아이들의 방패가 된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동행해 현장을 조사한다. 보호 대상 아동의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의 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를 연계하는 업무를 한다.

지자체의 아동학대 조사·판정 등의 업무를 명문화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10월 1일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처다.

지금까지 민간기관인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련 업무를 맡아왔다. 민간인 신분이다 보니 조사를 거부해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어 학대자와 아동을 분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아동보호에 관한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이 강화됐다.

전담 공무원들은 현재 출근 후 바로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동해 현장조사, 지침숙지, 사례관리, 협력기관들과의 원활한 소통 등을 실습하고 있다. “현장에 나가 보니 사건마다 대처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동안전 확보가 우리의 최종 목표니까요.”(조인선 주무관)

“사회복지 업무 경험을 살려 누락 되는 사건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김호현 주무관)

이들의 말에 전담 공무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성남시는 내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지난해 3월부터 10가지 구성요소를 이행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 권리협약에 따라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4대 기본

권리인 생존, 보

호, 발달, 참여권

등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 031-729-2869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자가 점검 하세요!

“지금 당신은 훈육을 하고 계십니까? 학대를 하고 계십니까?”

성남시는 흔히 가정에서 훈육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아동권리 존중 및 아동학대 관련 인식도와 실천력의 수준을 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부모용 자가평가표를 개발했다. 자가평가표에 따라 부모 스스로 평가, 점검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에 따른 교육자료를 제시했다.

11월 19일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아동학대 예방은 아이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잠시 시간을 내 우리의 아동권리 존중 인식도를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자.

자료는 성남시 홈페이지(www.seongnam.go.kr) 분야별정보(복지/아동/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 031-729-2943

부모용 자가평가표			
위에서 첨부한 표지를 본문에 부록한 자가평가표			
문항	설명	성적	평점
1.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나 행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1~5점	1~5점
2.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이나 행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1~5점	1~5점
3.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이나 행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1~5점	1~5점
4.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이나 행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1~5점	1~5점
5.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이나 행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1~5점	1~5점
6.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이나 행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1~5점	1~5점
7.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이나 행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1~5점	1~5점
8.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이나 행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1~5점	1~5점
9.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이나 행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1~5점	1~5점
10.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이나 행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1~5점	1~5점
11.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이나 행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1~5점	1~5점
12.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이나 행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1~5점	1~5점
13.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이나 행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1~5점	1~5점
14.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이나 행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1~5점	1~5점
15.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이나 행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1~5점	1~5점
16.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이나 행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1~5점	1~5점
17.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이나 행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1~5점	1~5점
18.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이나 행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1~5점	1~5점
19.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이나 행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1~5점	1~5점
20.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이나 행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1~5점	1~5점
21.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이나 행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1~5점	1~5점
22.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이나 행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1~5점	1~5점
23.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이나 행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1~5점	1~5점
24.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이나 행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1~5점	1~5점
25.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이나 행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1~5점	1~5점

부모용 자가평가표 결과 표지			
문항	설명	성적	평점
1.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나 행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1~5점	1~5점
2.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이나 행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1~5점	1~5점
3.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이나 행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1~5점	1~5점
4.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이나 행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1~5점	1~5점
5.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이나 행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1~5점	1~5점
6.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이나 행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1~5점	1~5점
7.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이나 행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1~5점	1~5점
8.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이나 행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1~5점	1~5점
9.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이나 행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1~5점	1~5점
10.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이나 행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1~5점	1~5점
11.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이나 행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1~5점	1~5점
12.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이나 행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1~5점	1~5점
13.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이나 행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1~5점	1~5점
14.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이나 행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1~5점	1~5점
15.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이나 행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1~5점	1~5점
16.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이나 행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1~5점	1~5점
17.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이나 행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1~5점	1~5점
18.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이나 행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1~5점	1~5점
19.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이나 행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1~5점	1~5점
20.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이나 행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1~5점	1~5점
21.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이나 행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1~5점	1~5점
22.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이나 행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1~5점	1~5점
23.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이나 행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1~5점	1~5점
24.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이나 행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1~5점	1~5점
25.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	아동학대에 대한 행동이나 행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1~5점	1~5점



아동친화도시 성남 ④

성남시 아동친화도

아동, 부모(보호자), 아동 관계자가 얼마나 아동친화적이라고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다.

- 조사기간 2019. 10. 16 ~ 11. 16
- 조사방법 설문조사
- 조사기관 (주)모티브앤
- 조사결과 성남시 아동친화도 59%(전국 48%)

아동, 부모, 아동 관계자 1,857명을 대상으로 아동과 밀접한 6대 생활영역이 얼마나 아동친화적인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성남시의 아동친화도는 59%로 높게 나타났다. 주거환경(90%), 교육환경(71%)이 가장 높았고, 안전과 보호(59%), 놀이와 여가(55%), 보건과 사회서비스(54%) 순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와 시민의식(27%)이 가장 낮았다. 참여와 시민의식이 낮게 나타난 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아동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건강하고 주체적인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 조사대상 1,857명
- 조사방법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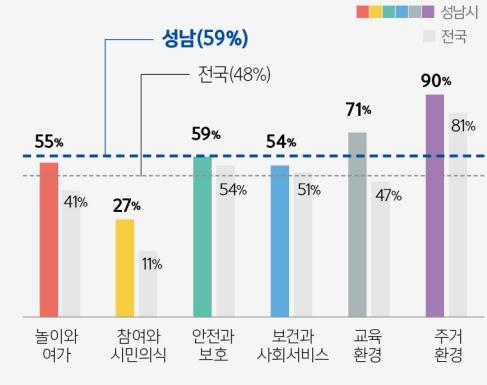
아동 1,286
부모 380

관계자 191

- 조사내용 6대 생활영역의 아동친화도



• 조사결과





당신들이 있어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는 성남 이야기

차가운 바람에 몸이 움츠러드는 요즘, 비전성남에 실린 다섯 편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을 훈훈하게 해준다. 3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하늘나라로 간 생후 12개월 정민 군의 이야기에 눈물 흘리고, 고사리손으로 모은 용돈을 기부하는 작은 천사들 이야기에 미소 짓는다. 어린 환우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인형을 만드는 사랑나눔, 역경을 딛고 꿋꿋하게 잘 자라준 수환 군 이야기에 응원을 보내고 장애인 전용 미용실 이야기에 성남에서 사는 게 자랑스러워진다.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 이들의 삶에 비전성남 독자를 초대한다.

장기기증은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기적입니다

3명에게 새 생명 주고 하늘나라 간 생후 12개월 서정민 군

취재 구현주 기자 sunlin1225@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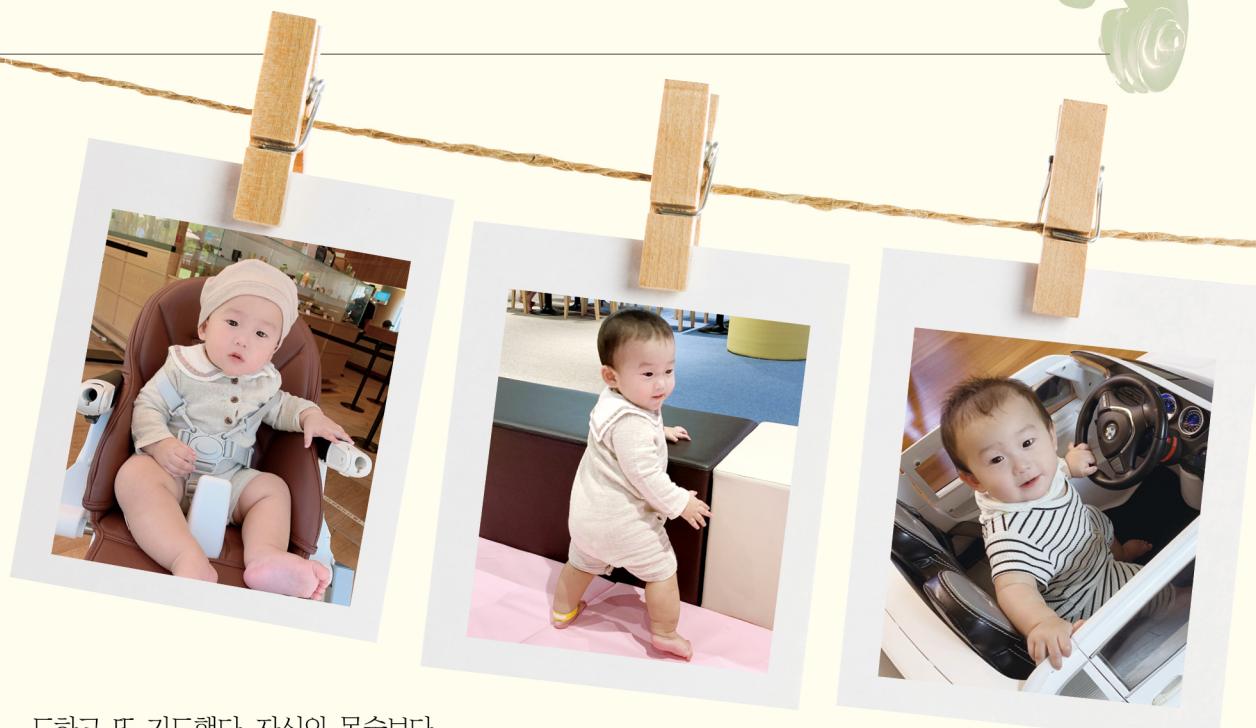
서정민 군은 짧은 12개월의 삶 동안 1살, 8살, 18살 3명에게 간, 신장, 심장, 폐를 기증하고 천사가 돼 하늘나라로 떠났다.

7월 13일 정민 군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뇌사 추정 상태에 빠졌다. 그래도 엄마 이나라(27·중앙동) 씨는 아들을 포기할 수 없어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기 위해 연명치료를 계속했다. 그러던 중 아픈 애기들을 둔 맘 카페에서 장기이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엄마들의 사연을 접하고 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대기자가 하루 5.2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제는 힘들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몸부림쳤다. 그러나 많은 아이들이 장기기증을 못 받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접했다. 세상에 정민이 같은 아픈 아이들이 많은 현실을 알게 됐고 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장기기증을 결심하게 됐다”고 이나라 씨는 장기기증의 배경을 말했다.

9월 16일 뇌사상태로 병원에서 첫돌을 보내고 9월 26일 오후 2시, 의료진에 의해 장기 적출이 시작됐다. 저녁 9시, 부모와 마지막 이별을 하는 자리에서 가족들은 정민 군과 꼭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장기기증 앞에 누구보다도 마음이 힘들었을 정민 군의 엄마와 아빠 서민기(38) 씨는 장기 수혜자들에게 “정민 이의 뒷까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곳도 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들로 자라나길 바란다”고 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장기기증에 대해 정민 군의 부모가 선택한 길도 다른 장기기증 부모와 마찬가지로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3년 같은 3개월의 시간 동안 온갖 기계와 약물로 힘들어 하는 정민 군을 지켜보며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통곡과 실신을 반복했고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기



도하고 또 기도했다.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의 몸에 큰 수술을 받게 하는 것이 맨발로 가시밭길을 걷는 것보다 더 힘들었다. 이나라 씨는 서정민 이름 세 글자가 알려져 장기기증을 고민하는 시민들이 기증을 결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

뇌사자 장기기증 현황은 각 국가의 장기기증 활성화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장기기증의 국가별 비교기준(인구 100만 명당 뇌사자 장기기증자 수)으로 활용되며, 뇌사자 장기기증 추이는 장기이식 대기자들에게는 대기기간의 변동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다.

2019년 통계청 자료에서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스페인 2,301명, 미국 1만1,870명, 한국 450명이고 인구 100만 명당 기증자 수는 스페인 48.9명 미국 36.8명 한국 8.6명이다.

3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한 서정민 군은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 추모공원 하늘누리 제2추모원 1층 개인단 오대실 12993에 안치됐다. 정민 군의 장기기증을 계기로 많은 성남시민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기를 기원한다.

INFORMATION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경기지부 031-782-4044

위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65(금곡동 161)

장기기증 희망등록 방법 안내

- 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등 장기기증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장기기증 희망등록 가능
- ② 성남시 금곡동에 위치한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경기지부(031-782-4044)로 전화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서를 요청, 주소지로 발송된 장기기증 희망등록서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회신
- ③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홈페이지에서 장기기증 희망등록서를 다운로드한 후 내용을 작성해 팩스 (031-782-4043) 혹은 이메일(gg@donor.or.kr)로 회신
- ④ 본인의 모바일폰으로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앱을 다운받아 등록 가능



한 땀 한 땀 정성 담아 만든 인형으로 전하는 사랑

환우와 함께하는 사랑나눔 ‘아라 인형공방’

취재 나안근 기자 95nak@hanmail.net



인형만들기에 참여한 주민들



날이 좋은 가을 주말, 몇몇 청소년들이 영상을 보며 열심히 인형을 만들고 있었다. 바느질이 조금 어렵고 서툴러도

표정은 진지하고 사랑스럽다. 긴 팔과 다리에 토끼 얼굴을 한 팔등신의 재미있고 귀여운 인형이다. 학교 일과와 공부만으로도 바쁜 학생들이 인형을 만드는 이유는 ‘아라 인형공방’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아라 인형공방은 인형만들기를 통해 사랑나눔을 실천하는 성남시 행복학습센터 공동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두 개의 인형을 만들고 한 개를 어린이 환우에게 기증하는 프로그램이다. 백현마을 4단지 마루아라 도서관(관장 변소연)에서 진행하는 이번 나눔에는 백현마을 3·4단지 성인과 청소년,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이용자·환자·보호자,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한 40명이 참여했다.

9~10월 두 달 동안 주 1회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듣고 인형을 만들어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어린이 환우들에게 기증한다. 수업은 비공개 밴드를 통해 진행하는데 매주 목요일에 인형 제작과정 영상이 업로드된다. 영상을 보며 다음 수요일까지 그 주 과정의 인형을 만들어 완성사진을 밴드에 업로드하고 출석을 확인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형 만들기 수업도 어느덧 막바지다. 바느질이 서툰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을 서로 돋기 위해 주말에 잠시 시간을 냈다. 서로 만든 인형을 보며 다시 배우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한다. 매번 직접 만나 함께 만들지는 못했어도 인형을 만드는 마음은 늘 함께였다.

분당서울대병원 환자와 보호자들도 밴드에 완성해가 는 인형 사진을 올리며 열심히 참여했다. ‘행복한 시

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 ‘오랜만에 하는 바느질이 너무 재미있다’, ‘인형 만들며 좋은 치유의 시간을 보냈다’는 내용의 따뜻한 소감도 나누며 함께 하는 과정이 주는 기쁨도 배웠다.

코로나19로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시기, 귀여운 인형을 만들어 어린이 환우들에게 줄 생각을 하며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참여 어르신들의 함께하는 기쁨도 매한가지다.

처음엔 실수할까 봐 걱정이 많이 됐다는 박민서(보평중 1) 학생은 “열심히 하다 보니 지금은 바느질 솜씨가 많이 늘었고 재미도 있어요. 어린이 환우들이 제가 만든 인형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두 개 중에 더 잘 만들어진 인형으로 선물할 거예요”라고 말하는 마음이 참 곱다.

정성으로 완성된 인형은 11월 13일에 분당서울대병원 어린이 환우들에게 기증할 예정이다.



분당서울대병원 환자와 보호자들도 밴드로 소통하며 아라인형 만들기에 함께했다.

용돈 모아 기부한 ‘고사리손’ 작은 천사들

구미1동 신세이·아율·아인 자매

취재 양시원 기자 seew2001@naver.com

자신들의 용돈을 어려운 이웃

에게 선뜻 내놓은

작은 천사들이 있

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성남시 분당

구 구미1동에 사는 신

세이(12), 아율(8), 아인

(6) 자매는 얼마 전 저

소득층 이웃돕기 후원

금을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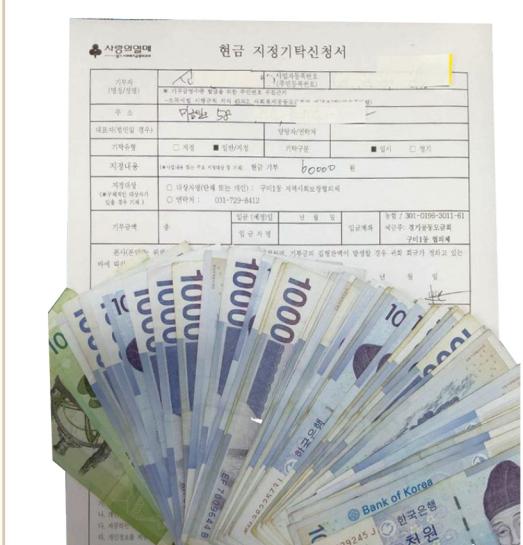
기부금은 생일과 명절

친척들에게 받거나 심부름하기, 시험 100점 을 맞는 등 축하할 일이 있을 때 가정에서 받은 용돈으로 마련했다. 평상시 군것질을 하거나 장난감을 사지 않고 차곡차곡 모은 것이다.

어머니 김영주 씨는 “아이들과 재난지원금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코로나로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우리는 무얼 할 수 있을까?로 화제가 옮겨갔다. 평상시 유니세프 기부를 해오고 있던 터라 아이들도 생활 속 작은 기부를 실천했으면 하는 생각에 피부에 와 닿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행정복지센터 모금함이 떠올랐다. 직접 손으로 모금함에 기부금을 넣자며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해 방문했는데, 그날따라 찾을 수가 없었다. 센터 공무원에게 물었더니 들어오라고 하시면서 안내를 자세히 해주셔서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하게 됐다”며 수줍어했다.

세 자매도 “기부를 하고 나니 기분이 좋고 뿌듯했다”는 소감을 전했다. 구미1동 행정복지센터 윤혜영 주무관은 “코로나로 모두 힘든 시기에 기부 천사들이 찾아와 따뜻한 온기를 전해줬다”며 “고사리손으로 쭈뼛거리며 기부한 소중한 금액은 꼭 필요한 분들께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액수는 많지 않지만 아이들의 따뜻한 정성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다.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미용실 이용할 수 있어요”

도촌종합사회복지관, 전국 최초 장애인 전용 미용실 ‘함께헤어(hair)’ 오픈

취재 정경숙 기자 chung0901@naver.com



머리를 손질하는 일은 일상의 아주 작은 부분이다. 그러나 혼자서 밖에 나가는 것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는 미용실 문턱은 높기만 하다. 이·미용은 기본적인 권리인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미용실에 들어갔을 때 손님들이 이상한 시선을 보내거나, 장애 아동이 돌출 행동을 보일 경우 불쾌감을 표하는 사람들 있다. 이런 이유로 문전박대를 당하거나, 차별적 시선 등으로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술한 불편을 겪었다. “이젠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당당히 미용실을 이용하세요!” 장애인 전용 미용실 ‘함께헤어(hair)’가 전국 최초로 10월 12일 성남도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종민) 3층에 문을 열었다.

‘함께헤어’는 장애가 있어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하기

에 제약이 있는 성남지역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전문 미용사가 커트 서비스를 실시하는 1인 미용실이다.

지적장애 자녀를 둔 모 씨는 “내 아이의 머리를 멋스럽게 깎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깔끔하게만 손질해 달라는데도 받아주는 미용실이 없어서 여주 까지 간 적이 있다”면서 “이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미용실이 우리 성남시에 생겨서 고맙고 축하한다”고 말했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모 씨는 “발달장애 아이들은 소음에 민감해서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작은 소리에도 돌출 행동을 할 때가 있어 한쪽만 자르고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토로하며 “여러분의 애정으로 ‘함께헤어’라는 공간이 마련돼 눈물 나게 고맙고 감격

스럽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함께헤어’는 사전예약으로 운영되며, 매주 월·수·금曜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3천 원이고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 층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오랫동안 장애인 미용봉사를 했다는 ‘함께헤어’의 이연자 미용사는 “제가 가진 기술로 보람 있는 봉사를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며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촌종합사회복지관 이종민 관장은 “장애인을 위한 미용실뿐만 아니라 장애자녀를 둔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미용교육을 병행해 장애자녀 가정에서 자녀의 미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촌종합사회복지관 함께나눔팀 031-720-8512



세상에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

쉼터 청소년들의 멘토 김수환 군

취재 이훈이 기자 exlee1001@naver.com



01 작업에 한창인 김수환 군

02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성남시단기·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에서 중·고교를 졸업한 후 이제는 어엿한 청년으로 자립한 김수환(21) 군.

여성가족부 모범청소년으로 선정돼 지난 8월 청소년쉼터 인식개선 캠페인(여성가족부 제작)에도 참여하는 등 쉼터 청소년들의 롤모델로 꼽힌다.

고교 재학 중 국내 최대 숙련 기능인의 축제인 전국기능 경기대회(귀금속공예 부문) 은메달 수상 등으로 두각을 나타내며 취업에 성공했다.

그는 16살이던 2015년 입소해 2019년 12월까지 쉼터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이제는 자립했고 직장생활 중이지만, 종종 쉼터에 방문해 선생님들, 후배들과도 만난다.

“올 때마다 진심으로 반겨 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귀금속 제작 중견기업에서 세공 업무 총괄을 맡았는데, 회사의 신임이 두터워 더욱 책임감을 느낍니다”라고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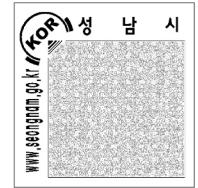
중학교 때 나무젓가락 공예에 심취했는데 쉼터의 김하종 신부님, 같이 오신 이탈리아 손님들 모두 작품을 칭찬하며 구입한 것을 계기로, 공예 분야를 전문적으로 배워야겠다고 마음먹고 진로를 정했다고 한다. 지금은 집에 와서도 디자인과 작품연구에 매진 중이고, 일과 취미가 모두 귀금속 공예가 됐다.

그는 “어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불필요한 일은 아니다”라는 에디슨의 말을 참 좋아한다. 쉼터의 후배들에게도 네가 겪어왔고 지금 겪는 일들이 힘들지라도, 나중에는 뼈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다는 말을 자주 들려준다고. 지난 8월 청소년쉼터 인식개선 캠페인에도 참여했는데, 아픔이 있고 고민도 많지만 또래와 같이 열심히 살아가는 쉼터 청소년들을 사회에서 좀더 낙천하게 안아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밝힌다.

현재 고교에서 귀금속 세공 재능기부 중인데, 아이들이 꿈과 목표를 수립하는 데에도 도움되고 싶다는 포부가 생겼다.

사회에서 어른들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꿈이 뭔지 모르겠다고 고민하는 것을 많이 접했기에, 단순히 ‘공부해라, 저축해라’ 이렇게 뻔한 충고는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후배들에게 자신이 바라는 삶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저의 장기적 꿈은 세계적인 주얼리 기업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윤을 위한 예쁜 주얼리가 아니라 고객의 삶을 의미있게 녹여낸 주얼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진정 자기가 원하는 삶이 원지 자유롭게 고민하고 실험할 수 있는 교육의 현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소망입니다.”



성남시민 독서릴레이 ㉓최하은 대학원생

죽음 그 이전, 그리고 그 너머의 이야기

삶, 고통, 죽음을 통찰하는 심리부검 『에드워 슈나이드먼 박사의 심리부검 인터뷰』



부검이란 사람이 죽은 원인을 알기 위해 시신을 해부,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한 정황이 확실한 경우 부검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심리부검은 자살의 경우에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사망 전 자살자의 심리 행동 양상, 변화를 주변인의 진술과 기록을 통해 검토해 자살의 구체적 원인을 검증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는 슈나이드먼 박사가 진행한 아서라는 짧은이의 심리부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슈나이드먼 박사는 심리부검을 위해 아서의 어머니, 아버지, 형, 여동생, 친구, 전 부인, 여자 친구, 심리치료사, 그리고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까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서 개인의 성격, 기질부터 생애 전반을 조명하고 자살의 원인을 다면적으로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우울증을 자살의 원인으로 생각하지만, 자살의 원인은 단순히 한 가지 요인으로 환원될 수 없습니다. 책에서도 아서 역시 우울증을 갖고 있기는 했으나 그것을 자살의 단편적인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이 죽으면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는데, 자살의 경우는 자살인 것이 밝혀지면 모든 조사는 종료됩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며 타살, 즉 범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만으로 자살인 경우 모든 조사를 종료할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라도 자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꼭 심리부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드워 슈나이드먼 박사의 심리부검 인터뷰』
에드워 슈나이드먼 지음,
학지사 펴냄



성남시민 독서 릴레이는
시민과 시민이 책으로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BOOK
RELAY
23

- ① 은수미 성남시장 『건지 감자껍질파이 북클럽』
- ② 노희지 보육교사 『언어의 온도』
- ③ 일하는학교 『배를 엮다』
- ④ 이성실 사회복지사 『당신이 옳다』
- ⑤ 그림책NORi 이지은 대표
『나의 엄마』, 『어린이』
- ⑥ 공동육아 어린이집 '세발까마귀' 안성일 선생님
『풀들의 전략』
- ⑦ 구지현 만화가 『날마다 도서관을 상상해』
- ⑧ 이무영 영화감독 『더 로드(The Road)』
- ⑨ 김의경 소설가 『감정노동』
- ⑩ '비북스' 김성대 대표 『단순한 진심』
- ⑪ 스토리텔링 포토그래퍼 김윤환
『포노 사피엔스』
- ⑫ 김현순(구미동) 『샘에게 보내는 편지』
- ⑬ 주부 유재신 님 『정원가의 열두 달』
- ⑭ 황찬욱 학원장 『위험한 과학책』
- ⑮ 한영준 송림고 교장 『라틴어수업』
- ⑯ 성남교육지원청 이동배 장학사
『두려움과 배움은 함께 춤출 수 없다』
- ⑰ 김혜원 호서대학교 교수 『죽음의 수용소에서』
- ⑱ 정소영 세계동화작은도서관장
『가재가 노래하는 곳』
- ⑲ 흥의택 가천대학교 교수
『명묵(明默)의 건축』
- ⑳ 김진엽 한국미술평론가협회장
『장하석의 과학, 철학을 만나다』
- ㉑ 서정림 공연연출가 『생각의 지도』
- ㉒ 최장섭 변호사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 ㉓ **최하은 대학원생 『에드워 슈나이드먼
박사의 심리부검 인터뷰』**
- ㉔ 김현성 가수·작가

독자 리뷰 모집

성남시민 독서릴레이에서 소개하는 책을 읽은 후 리뷰(원고지 6매 이내)를 <비전성남> 편집실(이메일 sn997@korea.kr)로 보내 주세요. 선정되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문의 031-729-2076~8

자살 유가족뿐 아니라 고인의 가까운 지인들에게 자살이라는 사인은 죽음에 대해 그 어떤 것도 설명해줄지 못합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고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없어 힘들어할 뿐 아니라 자신이 고인의 선택을 막을 수는 없었는지 죄책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 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장 동료를 떠나보내며 힘들어했던 적이 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 수만 있다면 조금 덜 힘들게 보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살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 무겁고 어려운 단어라 묻어두려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 주위에서도 설불리 위로의 말을 건네지 못하고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상실과 그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 직면하고 터놓고 이야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인에 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얘기하고, 마음껏 슬퍼하며 충분한 애도의 기간을 가져야 슬픔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부검은 그러한 면에서, 자살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들에게 그 자체로 치유와 극복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인의 성격, 고인과 함께한 모든 시간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리부검은 한 개인이 죽음을 선택하기까지의 과정을 매우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자살의 원인을 다면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살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덜게 해줄 수 있으며, 이 절차가 좀 더 보편화돼 수많은 데이터들이 축적된다면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되는 모델을 구현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에 담기에도 어렵고 슬픈 단어를 계속 언급해 글이 무거워진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회피하고 싶은 것일수록 더더욱 직면하고 해결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듯이, 심리부검이라는 낯선 절차도 더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책을 추천합니다. 예상보다 길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해 늘 건강을 염려해야 하는 요즘, 모두들 마음의 건강도 챙기며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가수이자 작가로도 활발히 활동하는 김현성 씨에게 성남시민 독서릴레이 주자로 시민들과 만날 기회를 드립니다. 어떤 책을 만나게 될지 깊어가는 가을 속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세 번째 도전, 이번엔 On-Line으로 11월 9~12일

2020 성남국제의료관광컨벤션(SMC) 홈페이지·유튜브 개최

11월 9일(월)부터 12일(목)까지 4일간 공식 홈페이지(www.smimtc.org)와 유튜브 채널(성남국제의료관광컨벤션)에서 의료관광과 헬스케어를 주제로 전문 국제 컨벤션을 개최한다. 참여기업 온라인 홍보관, 의료관광·헬스케어 국제 컨퍼런스, 의료관광 비즈니스 상담회, 헬스케어 수출 상담회, 시민 건강강좌 등 산업 실무자와 관련 기관 종사자,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동시에 진행한다.

이번 컨벤션 행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의료관광과 헬스케어 산업의 판로 구축 및 네트워크 확보와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메디컬 투어리즘', '제약·바이오·의료기기 해외 진출 전략' 등 현업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컨퍼런스를 개최해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개막일 9일 오전 11시에는 국민 소통전문가 김창옥 강사의 라이브 강연이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중계돼 열어 있는 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예정이다. 실내 운동법, 감염병 예방과 관리, 심혈관 질환 등을 주제로 시민 건강강좌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번 On-Line 컨벤션은 의료관광·헬스케어 산업 재도약과 시민 소통을 목표로 국내외 15개국, 해외바이어 60개사 이상 유치를 예상하고 있다. 개막은 9일(월) 오전 10시부터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다.

관광과 관광산업팀 031-729-8616



홍보영상으로 연결

프로그램 일정표

구분	11. 9(월)	11. 10(화)	11. 11(수)	11. 12(목)
개막영상		개회사, 축사, 행사소개		
온라인 홍보관		의료관광 / 헬스케어		
비즈니스 상담회		의료관광 비즈니스 상담회 & 헬스케어 수출 상담회		
컨퍼런스	특별세션		헬스케어 컨퍼런스	
	의료관광 컨퍼런스			
	Session-1	Session-2	Session-1	Session-2
건강강좌	스타강사 소통방송	감염병 예방	관상동맥질환	물리치료

* 11월 9일 10:00 개막영상, 10:10 특별세션, 11:00 스타강사 김창옥 라이브 소통방송



#성남시 #성남시민의_날 #밀리언타운



"성남SI -밀리언타운(The Million T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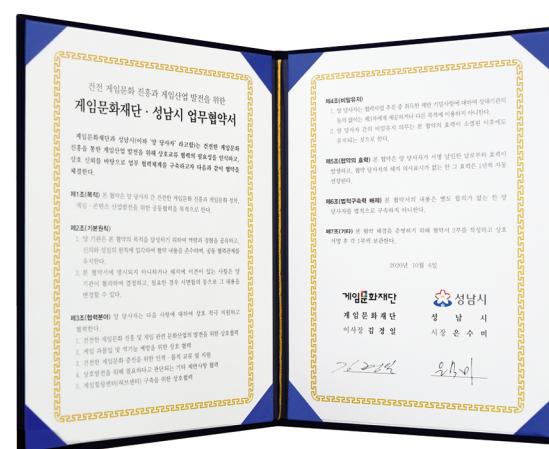
제47주년 시민의 날 M/V
제47주년 성남시민의 날을 맞아 7개 장르의 음악과 시민 300명 이상이 참여한 성남시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연결

성남시·게임문화재단, 건전 게임문화 진흥 협약

12월 정자동 킨스타워에 게임힐링센터 설치·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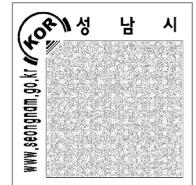
성남시와 게임문화재단은 10월 6일 '건전 게임문화 진흥과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12월 성남산업진흥원이 입주한 분당구 정자동 킨스타워 7층에 67m² 규모의 게임힐링센터(허브센터)를 설치한다.

게임힐링센터 운영을 통해 양 기관은 ▲시민 대상 게임

과몰입 예방 상담 ▲게임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사업 ▲게임 과몰입 상담 전문가 양성 교육 ▲게임 가족 캠프 ▲게임 진로 행사를 협력 시행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게임문화재단(이사장 김경일)은 국민의 건강한 게임문화 확립과 게임 관련 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2008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다. 게임문화재단의 운영 노하우가 접목돼 건전한 게임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게임콘텐츠팀 031-729-8895



플랫폼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지원

성남시, 실태조사 연구 용역 최종보고



성남시는 10월 7일 오후 2시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어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례'를 추진해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꾀하는 성남시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그 타당성을 확보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연구 용역을 맡아 작성한 이 보고서는 음식배달 라이더 154명, 대리운전기사 157명, 퀵서비스 라이더 162명, 가사도우미 44명, 클라우드 위커 107명 등 모두 5개 직종, 624명의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설문·심층 면접 조사한 결과를 담았다. 조사에 응답한 이들 ▲5개 직종별 월평균 소득은 음식배달 라이더 269만6천 원, 퀵서비스 라이더 239만9천 원, 대리운전기사 219만 원, 가사도우미 107만4천 원, 클라우드 위커 83만5천 원 등으로 조사됐다.

▲일감을 배정받기 위해 음식배달 라이더는 월평균

- 고용·산재보험 가입률 낮아, 사고 나면 본인책임
- 부당한 대우에 대리운전기사 99.4% '참고 넘어갔다'
- 성남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례' 추진으로 플랫폼 노동자 보호

46만 원, 대리운전기사는 67만 원, 퀵서비스 라이더는 89만 원을 플랫폼 앱 사용료, 중개업체 수수료, 유류비 등으로 부담하고 있었다.

▲음식배달 라이더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후 음식 배달 수요가 늘어 월평균 소득이 11만1천 원 증가했다. 반면, 대리운전은 41만9천 원, 퀵서비스는 25만6천 원, 가사도우미는 34만4천 원이 각각 감소했다.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미미했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음식배달 라이더 3.9%, 퀵서비스 라이

더 4.5%, 대리운전기사 16%, 가사도우미 22.7%다. 산재보험 가입률은 음식배달 라이더 14.9%, 퀵서비스 라이더 20.4%, 대리운전기사 13.6%, 가사도우미는 13.6%를 나타냈다. 이 때문에 ▲플랫폼 업무수행 중 사고가 났을 때 음식배달 라이더 84.4%, 퀵서비스 라이더 75.3%가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했다고 응답했다.

▲중개업체, 고객 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대리운전기사 99.4%를 포함한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자들이 별다른 대처 없이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법률 자문이나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자는 없었고, 응답자의 대부분은 노동조합 등과 같이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보편적 노동기본권 확대와 취약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플랫폼 노동자의 조직화와 이의단체 결성 지원,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 등을 통한 사회협약 추진, 노동법률상담 등의 법적 지원 제공과 긴급생활자금 지원, 유급병가·유급휴가 제공 등이다. 성남시 청년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관계부처 논의 내용을 토대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가칭) 제정 추진과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을 포함해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팀 031-729-8762

11월 6~8일, 현대백화점(판교점) '남다른 상점' 초대

성남시-현대백화점 협력, '남다른 상점' 현대백화점(판교점) B1 대행사장 생활리빙, 패션, 미용건강 등 40여 개 성남시 중소벤처기업 유망상품 판매 (슬기로운 쇼핑생활) 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 쇼핑을 위한 '남다른 상점' 온라인몰 오픈

성'남'시 + 현대백화점 + 색'다른' 이야기 = 남다른상점

지난해 성황을 이뤘던 남다른상점이 오는 11월, 그 두 번 째 행사를 연다. 남다른상점은 성남시와 현대백화점이 손잡고 펼치는 지역상생을 위한 협력사업이다. 성남시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색다른 이야기를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성남시에서 '남'과 색다른 이야기의 '다른' 글자를 따서 '남다른상점'이라 이름을 지었다. 특히 현대백화점은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지역밀착형 행사를 꾸준히 진행해 왔는데 남다른상점은 지역의 중소벤처기업과 주민과의 만남이 이뤄지는 행사라 더 의미가 깊다.

11월 6일(금)부터 8일(일)까지 3일간,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대행사장에서 진행되는 남다른상점은 성남시의 유망중소기업 제품을 갖추고 고객을 맞는다. 코로나 19로 집콕생활에 지친 고객들의 안전한 쇼핑을 위해 행사 당일 방역수칙 지키기와 일정 간격의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감염예방을 위한 준비도 철저히 했다. 또한

예년처럼 백화점 쇼핑나들이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올해는 현대백화점의 자사 온라인몰인 더현대닷컴과 현대 H-MALL에 '남다른상점' 기획전을 연다.

청명한 하늘이 이어지는 가을시즌, 11월의 첫 번째 주말은 가족과 함께 성남시 중소벤처기업들의 유망상품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 생활리빙, 패션, 미용건강 등 40여 개의 유망 품목들이 고객들을 기다린다.

문재인 대통령 구두로 잘 알려진 사회적협동조합 구두 만드는 풍경(대표 유석영)은 돋보이는 디자인에 편안함을 갖춘 수제화를 선보인다. 주식회사 엘씨벤파스(대표 최지수)는 커스터마이징 가방으로 각광받는 브랜드 '러브참'으로 고객들을 찾아간다.

남다른상점에 참여하는 준희어패럴(대표 권순호)의 권준혁 실장은 "지난해 남다른상점에 참여해 2,500여 켤레의 양말을 판매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며 "중소기업 판로에 어려움을 해갈시켜 주었을 뿐 아니라 제품 브



랜드 홍보와 소비자와의 만남의 기회가 돼 올해 역시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성남시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성남시와 현대백화점의 협력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이번 행사에서 반응이 좋은 상품은 현대백화점 온라인몰 등 지속적으로 입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행사의 일환으로 현대백화점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부금을 기탁할 예정이다.

INFORMATION

남다른 상점

- 일정 2020. 11. 6(금) ~ 11. 8(일)
- 장소 현대백화점 판교점(B1 대행사장)
 - * 현대백화점 자사온라인몰 '더현대닷컴', '현대 H-MALL' 동시판매
- 품목 생활리빙, 패션, 미용건강 등 40여 개 성남시 중소벤처기업 유망상품
 - * 위 행사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장스케치 | 광주대단지사건 명칭 지정을 위한 학술토론회

8.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으로 의견 모아

시민 공론화, 시의회 합의 과정 거쳐 정식 명칭 정할 예정

취재 박인경 기자 ikpark9420@hanmail.net



10월 8일 성남시청 산성누리에서 광주대단지 사건 명칭 지정을 위한 학술토론회가 있었다. 성남시의 생성, 성장, 발전 과정에 광주대단지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름을 정하는 중요한 자리다.

먼저 전우용 사학자의 발제가 있었다. 발제가 끝나고 좌장 하동근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진행에 따라 안종철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부위원장, 한도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김원 광주대단지사건 학술연구용역 책임연구원, 김준기 8.10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회장, 정인목 성남시 자치행정과장이 광주대단지사건의 명칭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우용 사학자는 ‘봉기, 투쟁, 항거, 항쟁’ 등의 의미를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지명과 주체, 역사적 성격의 문제를 종합해 ‘1971년 성남 이주민 봉기’를 제안했다.

하동근 좌장은 토론회를 시작하면서 “광주대단지사건



01 토론회장 모습 02 토론을 진행하는 하동근 광주대단지 사건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03 발제하는 전우용 사학자 04 명칭 제안을 위해 심사숙고한 원고

은 이야기 나누기를 꺼리는 사건이었다. 이름이 지역을 왜곡시키는 데 영향을 줬다”며 지명·주체·시선의 문제를 고려한 이름을 제시해 달라고 했다.

광주대단지사건은 해방 이후 최초의 도시 빈민투쟁이다. 성남의 태동이 된 사건임에도 폭동의 의미로 저평가 돼 왔다. 2021년 50주년을 맞는 광주대단지사건은 아직 공식적인 명칭이 없다. 참석한 토론자들은 광주대단지사건의 의미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몇 가지 이름을 제안했다.

‘1971년 성남 광주대단지’, ‘성남민권운동’, ‘1971 성남이 주민항거’ 외에 진상규명이 정확하게 되고 백서, 보고서 발표 이후 시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이름을 정했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오고 가고 토론하며 결정한 이름은 ‘8.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이다.

광주대단지사건 명칭 지정을 위한 학술토론회는 사건의 올바른 명칭을 지정해 역사에 관한 인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 개최됐다. 정식 명칭은 시민공론화 과정과 시의회 협의 과정을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자치행정과 인권보장팀 031-729-4833

광주대단지사건 1968년 서울시의 무허가 주택 철거계획에 따라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현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일대로 5만여 명이 이주했다. 강제 이주 당해 도착한 곳은 허허벌판으로 다시 판잣집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생계를 이어갈 일터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또한 이주민들에게 비싼 땅값과 과도한 세금이 부과됐다. 이에 이주민들이 최소한의 생계대책을 요구하고자 1971년 8월 10일 결집하고 행동했다.

광주대단지사건을 기록하다

1971년 8월 10일, 전성재 어르신이 전하는 비 오는 날의 기억

취재 윤해인 기자 yoonh1107@naver.com



‘드디어 내 집을 장만할 수 있구나!’. 서울 빈민 가의 판잣집 신세를 벗어나 ‘드디어 내 집이란 게 생기는구나’란 희망을 안고 온 사람들에게 줄 하나 그어 놓은 맨땅, 던져진 군용텐트는 무허가 판잣집의 삶보다 더한 처참함이었다. 그곳엔 일자리가 돼줄 공장도 없었고, 상가도 없었다. 취업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나갈 수 있는 교통수단 또한 형편없었다.

전성재(83·금광2동) 어르신이 강원도 평창, 고향을 떠나 처자식과 함께 성남에 터를 잡은 것은 1971년, ‘광주대단지사건’이 일어난 해였다. 딱지(분양권)를 받고 서울 청계천 등에서 온 사람들 중 대부분이 딱지를 팔고 대단지를 떠난 후였다. 터를 잡고 보니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탄리(현 태평동), 영창대군 묘지 앞이었다. 환경의 열악함도 모른 채 “광주대단지에 가서 두부를 만들어 팔면 좋을 것”이라는 속임수에 넘어가 20평 분양권을 평당 8천 원에 구입해 집을 지었다.

하지만 지대가 높다 보니 펌프로 끌어올리는 물은 두부를 만들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어르신은 “나는 형편이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당시 사람들이 처한 상황은 처참했다. 물이 부족해서 두부 장사를 접고 지인의 소개로 한전 성남출장소에 취직해 전기요금을 수금하러 다녔는데 전기세를 못 내는 집이 수두룩했다. 전기세가 많이 밀리면 전기를 차단했고, 차단기를

떼가는데도 아무 말 못하고 차단기를 내줬다. 당장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전기가 끊기는 건 별문제가 아니었다.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살 수밖에 없는 형편. 오죽하면 시장에서 팔다 버린 채소를 주워다 하기를 채우는 사람들도 있었을까. 어린 자식 입에 무엇으로건 풀칠이라도 해줘야겠기에 이집 저집을 회회하며 구걸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며 사람들의 고단했던 생활을 전했다.

“광주대단지사건이 일어났던 날은 비가 내렸어요. 성남출장소로 가는 고갯마루에 경찰서가 있었는데 경찰서에 불을 지르려는 사람들과 경찰이 맞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함성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성남출장소로, 수진리 방향으로 몰려갔어요. 경찰차가 불에 타고, 자동차가 뒤집히고… 전쟁과 같은 분위기였어요. 현재 수정구보건소 자리 근처에 을지로5가로 가는 버스 정류장이 있었는데 데모대가 버스를 틸취해서 버스 지붕 위까지 올라타고는 나타

나지 않는 양택식 서울시장 만나러 간다면 출발하는 걸 지켜봤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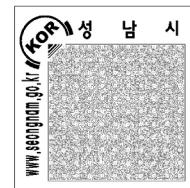
전성재 어르신은 “당시 상황에서 데모 군중이 무조건 이해되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오죽하면 저럴까, 상황이 이토록 악화된 이유를 들자면 ‘무계획적인 도시정책’과 이주시킬 당시 약속했던 토지분양가와 납부 시기, 기본적인 생계대책 등을 어긴 정부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했다”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과 함께 “사람 살기애에 참 어렵고 처참하고 힘난한 시절이었습니다”라고 성남의 1971년을 회고한다.



01, 02 난민캠프보다 열악했던 광주대단지 03 서울로 항의 시위를 떠나는 사람들

* 1960년대 말~70년대 초 성남시에 거주했거나 광주대단지(성남시)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비전성남 편집실 031-729-2076~8
이메일 sn997@korea.kr



건강한 관절! 만족한 백세 삶!



성남시의료원_정형외과

성남시의료원 정형외과

취재기자 구현주 약사 sunlin1225@naver.com

OS로 통칭되는 정형외과(orthopedics)는 ‘바로잡는다’는 뜻의 희랍어 orthos와 소아를 의미하는 paidos의 복합어로 처음에는 소아의 변형을 교정하고 예방하는 학문을 의미했으나 현대에는 사지관절, 척추의 외상과 질환, 퇴행성질환, 기형, 감염, 종양 등 폭넓은 영역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 정형외과는 지역적 특성상 고령, 만성 근골격계 환자가 많아 성남시의료원에서 가장 많은 외래, 입원, 수술을 시행하는 곳이다. 대학병원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환자 치료의 질을 보장하겠다는 정형외과 의료진의 결단이 통했을까? 정형외과 대기실의 환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우리 몸을 지탱하는 척추와 관절을 바로 잡으면 제2의 활기찬 삶이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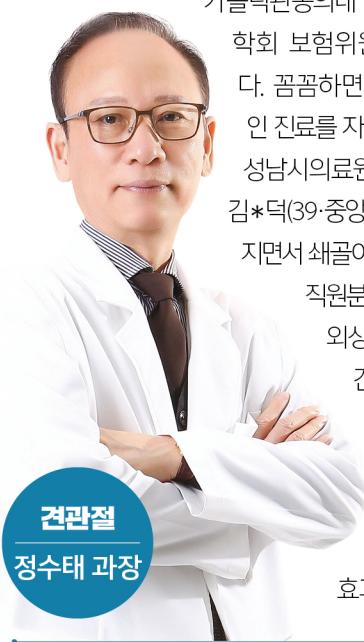
슬관절 수술 장면

견(肩, 어깨), 주(肘, 팔꿈치)관절의 질환과 외상, 스포츠 손상, 관절 내시경을 담당하는 정수태 과장은

가톨릭관동의대 교수와 견관절 학회 보험위원장으로 역임했다. 꼼꼼하면서도 교과서적인 진료를 자랑한다.

성남시의료원에 입원 중인 김*덕(39·중앙동) 씨는 “넘어지면서 쇄골이 부러졌다. 일주일 전 수술했는데 경과도 좋고 수술하신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모두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매우 만족한다”고 했다.

외상 외에도 어깨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오십견이라 불리는 동결견(유착성 관절낭염), 회전근개 질환(파열, 석회성 건염 포함), 어깨 불안정성(만성 탈구 포함)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심한 정도에 따라 비수술 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많은 수술이 관절내시경으로 가능하게 됐으며 예정보다 낮은 합병증 발생률과 수술 후 통증의 감소, 입원 기간 단축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견관절
정수태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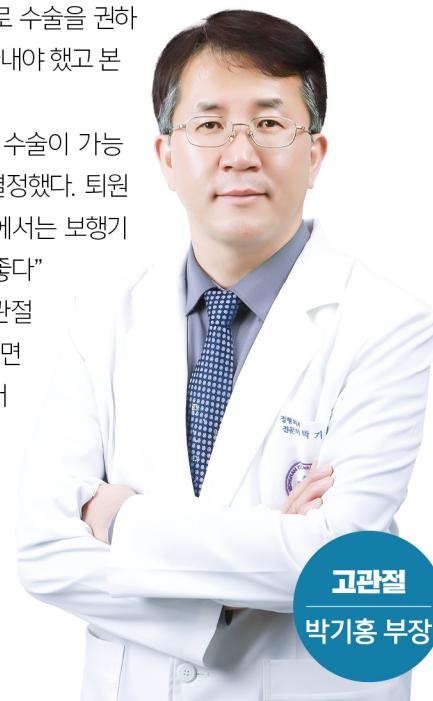
박기홍 부장은 고관절 질환 및 골절, 무릎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스포츠 손상, 인공관절 치환술을 담당한다. 정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서 지역환자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치료한다.

“자 일어나 보세요.” 박기홍 부장의 부축을 받고 훨체어에서 서서히 일어나는 97세 허*길 할머니는 3개월 전 낙상으로 고관절이 골절됐다. 초고령에다 당뇨·고혈압이 있는 고관

절 골절환자를 타 병원에서는 사망률이 높다는 이유로 수술을 권하지 않았다. 집에서 한 달 동안 가족들이 대소변을 받아내야 했고 본인은 극심한 통증에 시달려야 했다.

많은 고민 끝에 자녀들과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했고, 수술이 가능한지, 걸을 수 있는지를 충분히 상담한 후 수술을 결정했다. 퇴원 후 손자·증손녀와 함께 외래를 방문한 할머니는 “집에서는 보행기를 밀면서 걸어 다닌다. 수술 후 잘 지낼 수 있어 참 좋다”고 했다. 제2의 새로운 삶, 건강한 100세의 삶이 고관절 수술로 가능해졌다. 일단 낙상으로 고관절 골절이 되면 거동을 할 수 없으니 수술은 해야만 한다. 허*길 할머니 같은 초고령 환자도 인공관절치환술을 통해 끔찍한 통증에서 벗어나 독립보행을 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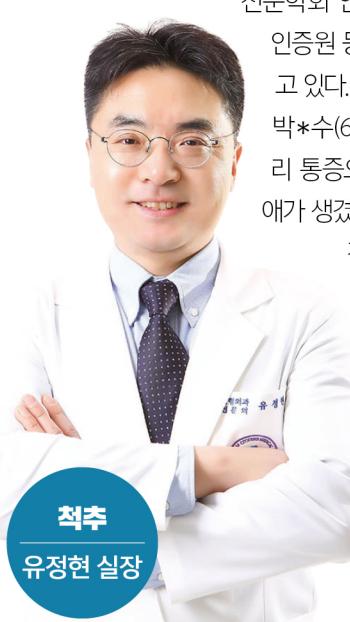
박기홍 부장은 “우리 병원의 정형외과 수술도 우수하지만, 세분화된 내과 전문의와 협진을 통해 이 모든 수술이 가능했다”고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고관절
박기홍 부장

가톨릭관동의대 교수를 역임한 유정현 실장은 척추 디스크, 협착증, 측만증 등 허리와 목의 통증, 관절염(상지·하지) 골다공증, 외상 치료를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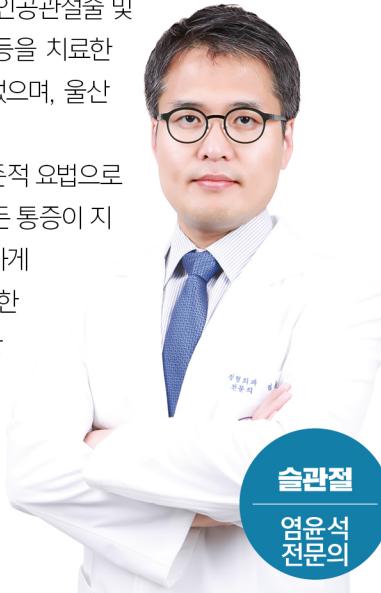
전문학회 연구뿐 아니라 의료분쟁중재원, 심평원, 인증원 등 병원, 환자 관련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박*수(63·신흥3동) 씨는 수년간 하리 통증과 다리 통증으로 제대로 걷지 못하고, 대소변에도 장애가 생겼다. 진료 후 요추 3-4-5번 심한 신경압박 진단을 받았고 수술을 했다. 박*수 씨는 “9월 말 성남시의료원에서 척추 수술을 했는데 그 아프던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 퇴원 후, 여러 병원에서 수술을 수차례 받고도 증상 호전이 없는 동네 친구에게 성남시의료원을 강력하게 추천해 곧 수술할 예정”이라며 성남시의료원의 홍보대사가 됐음을 전했다.

척추
유정현 실장

염운석 전문의는 무릎 관절 질환, 인공관절술 및 관절 내시경 수술, 스포츠 손상 등을 치료한다. 울산의대 교수를 10여 년 지냈으며, 울산 현대축구단 주치의를 역임했다.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 중 보존적 요법으로 호전이 없고, 일상 생활을 하기 힘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인공관절술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공관절술에 대한 전문서적을 집필했으며 이에 대한 임상경험이 풍부하다. 또한 최근 증가하는 스포츠 손상에 대해서도 많은 관절경 수술 경험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진료를 자랑한다.

슬관절
염운석 전문의

성남시의료원 정형외과의 특장점

- 정형외과 스태프 전원이 경력 20년 이상의 각 분야(척추, 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임상경험 풍부한 의료진으로 구성
- 전공의 없이 전문의가 직접 응급 수술, 시술 치료
- 대학·전문병원 이상의 진료의 질, 치료비는 상대적으로 저렴
- 외래부터 입원, 수술, 재활, 퇴원까지 빠른 의사 결정 시스템



바람골 언덕, 1천 개의 바람개비!

상대원2동 주민제안공모사업… 제1복지관·대원초교·셋길나눔터가 함께해

취재 이화연 기자 maekra@hanmail.net



상대원2동 대원공원이 있는 마을 뒤 언덕은 ‘바람골 언덕’이라고 불린다. 워낙 바람이 세서 그렇게 부른다고 한다. 그 언덕에 색색의 바람개비가 돌고 있다. “어느 날 보니 수많은 바람개비가 돌고 있어서 이런 걸 누가 해놨는지 궁금했는데 볼 때마다 기분이 상쾌해져서 아주 좋아!”

바람개비를 만져보며 지나가던 어르신이 하는 말이다.

바람골 언덕 1천 개의 바람개비는 주민제안공모사업의 결과물이다. 상대원2동(동장 엄기소) 제1복지관(관장 박미경), 대원초등학교 복지팀, 마을공동체 셋길나눔터(대표 김경민)는 네트워크사업으로 함께하는 주민제안공모사업을 코로나19로 연기하다 이제 겨우 시작했다. 1천 개의 바람개비 재료를 준비하고, 공휴일인 한글날을 택해서 마을네트워크가 모였다. 바람개비를 조립하고, 두세 명씩 조를 나눠 자



01 바람골 언덕으로 불리는 데크길 02 바람골 언덕 산책로에서 만난 셋길나눔터 김경민(왼쪽) 대표와 박정미 회원 03 대원초교 울타리에 장식한 바람개비

리를 정했다.
대원공원 입구 765m의 데크길, 대원초등학교 철제 울타

리, 체육공원, 88놀이터, 제1복지관 울타리 등 곳곳에 바람개비를 달았다.

2014년부터 마을공동체 ‘셋길나눔터’(회원 60명) 활동을 하고 있는 김경민 대표는 특히 이번 사업에 20명의 청소년 회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해 줘서 고맙기만 하다. 김경민 대표는 훌몸어르신들을 위해 면마스크 제작 사업을 하는 등 코로나19 와중에도 마을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마을공동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싶단다. 특히 마을네트워크로 함께 일을 하는 것은 훨씬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육사업으로 엄마들 일복 만들기, 어르신 꽃바지를 만들어드릴 계획으로 해마다 해온 ‘할메야기방 나들이’를 하지 못하고 한 해가 가는 것 같아 아쉬웠는데, 훌몸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동네다 보니 일회용 마스크를 빨아서 쓰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면마스크를 만들어 드리자는 데 의견을 모았어요. 250개의 면마스크를 만들어 목에 걸 수 있는 끈까지 구해서 전달해드렸습니다.”

올해 노인회장을 맡아 일한다는 상원경로당 안금자(81) 회장은 셋길나눔터에 고마움을 전한다.

“매년 연말이면 아이들과 마을공동체 회원들을 불러서 만두 속을 푸짐하게 넣어 함께 만두를 만들어 먹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그러지를 못해 아쉽습니다.”

오늘도 상대원2동에는 1천 개의 바람개비가 곳곳에서 신나게 돌고 있다. 코로나 일상으로 어두워진 마음을 달래주려는 듯. 바람골 언덕에서 만난 희망이었다.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도서관 회원 모집

- 대상 취학 전 영유아 자녀를 둔 성남시민 및 성남시 직직자
- 신청방법 아이사랑놀이터 홈페이지 접수
- 우선순위 추첨제 시청점 500명, 분당구청점 200명
 - 신청기간 : 10. 24(토) ~ 11. 6(금), 추첨일 : 11. 11(수)
- 상시 신청 수정점, 양지점, 금광점, 태평점, 중원점
 - 신청기간 : 11. 1(일) 09:00 ~ 선착순 마감(지점마다 추첨인원 다름)

우리동네 건강지킴이 사업 안내

- 대상 성남시 영유아 가정(각 교육당 40가정)
- 내용 을지대학교 교수진과 협력해 영유아 건강검사 실시(신체건강, 심리, 부모 상담 및 교육 등). 온라인 교육 및 키트를 활용한 검사(체험) 진행 후 질의에 대해 교수진들과 상담
- 신청시기 11. 2(월) ~ 11. 16(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신청방법 아이사랑놀이터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홈페이지→커뮤니티→공지사항→교육행사 →11월 우리동네 건강지킴이)

아이사랑놀이터 홈콕 놀이키트

집에서 아이와 즐겁게 놀이할 수 있는 놀이키트를 택배로 발송해드립니다.

- 대상 성남시 영유아 가정
- 내용 배송된 놀이키트를 이용해 놀이 활동 후 이용후기 작성(놀이키트 물품 : 영아용, 유아용, 아이사랑놀이터 지점특화 3종류)
- 신청기간 10. 29(목) ~ 11. 19(목)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매주 한 가정에 하나의 놀이키트 배송, 중복신청 불가)
- 신청방법 아이사랑놀이터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홈페이지→커뮤니티→공지사항→교육행사 →11월 아이사랑놀이터 홈콕놀이키트)



가정에서 공연관람, 방구석 콘서트

- 대상 성남시 영유아 가정
- 1차 공연 이상한 나라의 앤리스(뮤지컬)
 - 11. 6(금) 오전 10시 ~ 11. 13(금) 오전 10시
- 2차 공연 마술 고양이(마술퍼포먼스)
 - 11. 20(금) 오전 10시 ~ 11. 27(금) 오전 10시
- 공연 시청방법
 - 아이사랑놀이터 홈페이지(<https://sneducare.or.kr/echild>)→커뮤니티→교육·행사
 -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sneducare.or.kr/care>)→커뮤니티→공지사항
 - 유튜브(검색-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 공연 설문 이벤트 공연 보신 후 설문 참여자 중 추첨 통해 기프티콘을 문자로 발송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031-721-1640(내선 4번)



NEWS 01

코로나19 매출 피해 업종 100만~200만 원 지급

성남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50곳 현장 접수센터 운영

성남시는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5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 접수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새희망자금은 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영업제한,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업종에 지급하는 자금이다.

이번 신청 대상은 추석연휴 기간이 겹쳐 앞선 지급 기간(9월 24~25일)에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이다.

신청서, 매출증빙서 또는 피해업종 증빙서 등을 내면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150만 원, 일반업종은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온라인 접수도 병행해 인터넷 홈페이지 '새희망자금.kr'로 신청해도 된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11월 20일까지 순차적으로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한다.



지난 4월 9일 분당구청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비를 신청하는 모습

성남시 상권지원과 관계자는 "정부의 새희망자금 지원에서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게 하려고 50곳의 현장 접수센터를 설치했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상권지원과 상권활성화팀 031-729-8974

NEWS 02

중증장애인 출·퇴근 셔틀버스 지원사업

市·한국장애인고용공단·SK텔레콤·(주)모두의셔틀 '착한 셔틀 플랫폼 시범사업' 협약

성남시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SK텔레콤(주), (주)모두의셔틀 등 4개 기관·기업이 손잡고 중증장애인 출·퇴근 셔틀버스 지원사업을 펼친다. 10월 6일 '착한 셔틀 플랫폼 시범사업'에 관한 업무 협약에 따라 (주)모두의셔틀은 중증장애인에 출퇴근 셔틀을 증개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안전한 경로를 구성하고, 성남시 소재 여객운송업체의 참여를 유도해 내년 3월까지 시범사업을 실행한다.

SK텔레콤은 시범사업 이용요금을 지원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셔틀 이용자 위치 확인 솔루션을 협약 기관·

기업에 제공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성남지역 근로 중증장애인에게 셔틀 이용과 고용 관련 지원 제도를 안내한다. 성남시는 중증장애인 이동지원 시범사업 운영을 총괄해 출퇴근 문제 해결과 고용 촉진을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착한 셔틀 플랫폼 시범사업에 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교통 요금 지원 예산 규모, 지역 고용 창출 효과 등 운영성과를 종합 분석해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031-729-2862

NEWS 03

2020년 10~11월 성남행복아카데미 강연

○ 강연송출 일시 2020. 10. 26(월) ~ 12. 3(목) ○ 운영채널 유튜브(www.youtube.com) "성남TV"

○ 강연일정

차수	강사	강연주제	송출기간
11강	구작가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은 버킷리스트	10. 26 ~ 10. 29
12강	우종영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11. 2 ~ 11. 5
13강	허두영	요즘 것들	11. 9 ~ 11. 12
14강	이지영	당신의 인생을 정리해 드립니다	11. 13 ~ 11. 17
15강	박정훈	배달의 민족은 배달하지 않는다	11. 18 ~ 11. 21
16강	이정모	공룡, 고래, 플라스틱 그리고 멸종	11. 23 ~ 11. 26
17강	김하나	힘들 때 힘을 빼면 힘이 생긴다	11. 30 ~ 12. 3

**성남시, 2020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성남시 인구주택총조사가 11월 1~18일 실시된다. 5년 주기로 시행되며 현재 성남시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이 대상이다. 인구·가구·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 국가와 지역의 새로운 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먼저 전 국민의 20% 가구를 대상으로 10월 15~31일 17일간 인터넷, 모바일, 전화 등 비대면 조사를 실시한다. 이 기간에 응답하지 않은 가구는 담당 조사원이 11월 1~18일 방문 조사한다. 방문 조사 시에도 응답자가 희망하면 비대면 조사도 가능하다. 현장조사 항목은 이름, 나이, 교육정도, 혼인상태, 통근통학, 경제활동상태, 임차료 등 45개 항목이다. 이번 총조사는 종이 없는 전자조사로, 조사원이 방문 면접조사 시 조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태블릿PC를 활용한 전자조사(CAPI)가 실시된다. 2020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2021년 9~12월 주제별로 순차적으로 공표될 예정이다.

정책기획과 빅데이터팀 031-729-8803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경력단절여성 취업 대비 교육**

11월 9~13일, 11월 23~27일(09:30~13:30) 각 5일 20시간 진행된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자신감을 회복하고 구직활동 실전준비를 돋는다. MBTI·직업선판도 검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면접 등을 교육한다. 전화, 방문 접수한다.

워킹맘 주거공간 개선서비스(정리수납)

성남시 가주 워킹맘 가정에 정리수납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워킹맘으로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으며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비용은 무료이며 선착순 전화, 방문, 이메일(snw0502@naver.com) 접수한다.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031-718-6696, www.snw.or.kr

**성남여성비전네트워크 온라인 작은토론회
'여성폭력, 지역에서 답을 찾다' 개최**

- 행사일시 11. 11(수) 15:00
- 행사주제 여성폭력, 지역에서 답을 찾다
- 주요내용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역할 등
- 참여방법 성남시여성비전센터 유튜브 채널 생중계 (누구나 시청 가능)
-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hWoKssA7jzMNRmpMWw83vg>(유튜브에서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검색)
- 기타문의 031-729-8539

**우리동네 포트나잇 ON(성남시)**

- 주제 play-ON “다, 행복한 공정무역 이야기”
- 일시 11. 3(화) ~ 11. 13(금) (온라인 송출)
- 장소 YOUTUBE Live(성남공정무역협의회)
- 내용 ON-공정무역 talk(강좌 11. 3(화) 오전 10:30)
ON-공정무역 unboxing(물품소개 11. 4)
ON-공정무역 interview(인터뷰 11. 5)
- 포트나잇이란?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지역사회의 작은 커뮤니티들이 참여해 2주간의 공정무역 캠페인을 펼치는 행사를 말한다.



밥으로 쌓는 우정과 신뢰 '청년 소셜다이닝'

꽃피는신뢰, 성남시자원봉사센터 등 청년 가까이 운영

취재 전우선 기자 folojs@hanmail.net

사회적협동조합 꽃피는신뢰(대표 유승태, 이하 꽃신)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누구나 건강한 식생활 생태계와 사회적 관계망을 누릴 수 있는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2018년부터 마을부엌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혼자 식사를 해결하는 청년들의 건강한 식생활과 관계 형성을 위해 청년 소셜다이닝(Social dining)을 진행하고 있다.

유승태 대표는 마을부엌을 구상하면서 혼자 밥을 먹는 청년들의 식생활을 조사했는데 결과는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 청년들은 아르바이트와 학업으로 시간이 없고 요리 지식도, 같이 먹을 사람도 없었다. 형편상 배고픔을 면하는 정도로만 식사하는 청년들도 있었다. 청년들 가까이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했다.

청년들이 매주 한 번씩 모여 직접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어 함께 먹는 '청년 수다레시피'로 시작했다. 수다레시피는 참여 청년들이 직접 만든 이름이다. 낯선 이들과 함께 요리하고 밥을 먹는 건 어색할 수도 있지만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청년들은 배고픔을 해결하고 반찬을 구하기 위해 오기도 했다. 모임이 거듭될수록 만남과 관계 형성에 대한 욕구가 커졌다. SNS에 열어놓은 오픈채팅방에는 알음알음 청년들이 들어오고 무엇을 만들어 먹



01 요리강좌에 참여한 청년들 02 직접 반찬을 만드는 청년들 03 배달할 먹거리를 포장하고 있다.
을지 의견과 계획이 오갔다.
청년들은 영화도 보고 외식도 하면서 가까워졌다. 최형민 씨는 청년 소셜다이닝에서 직접 만든 빼빼로를 선물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기뻤다. 계속 참여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어울리는 것이 좋아졌고 성격도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꽃신의 청년 소셜다이닝은 올해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우수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돼 운영비를 지원받아 9~11월 '수다떠는 청년식당'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다떠는 청년식당은 성남시자원봉사센터가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지역에 공간을 마련해 운영한다. 꽃신이 신흥동 사무국과 위례스토리박스에 운영 중인 청년 똑똑(Talk-Talk) 식당이 1·2호점으로 지정됐고 은행종합사회복지관에 마련되는 3호점은 11월에 시작한다.

꽃신의 수다떠는 청년식당은 매달 요리강좌와 반찬만들기가 각각 2회, 지역 어르신들에게 먹거리를 전하는 봉사가 1회씩 열리고 있다. 9월 봉사에 참여했던 이예은 씨는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는 걸 보고 놀랐다.

꽃신의 청년 소셜다이닝은 그동안 경험과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연말 새로움을 꾀할 예정이다. 성남시자원봉사센터도 내년에는 수다떠는 청년식당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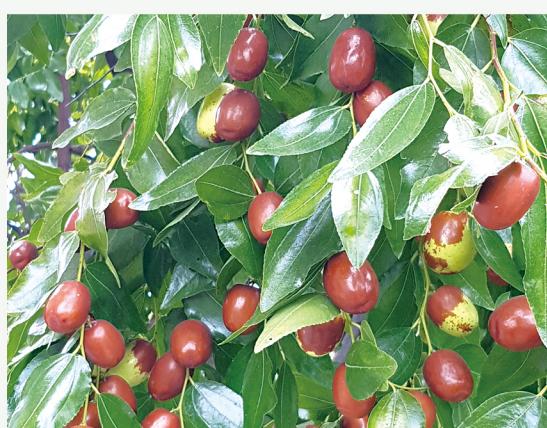
5호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유승태 꽃신 대표는 "청년들이 또래뿐만 아니라 주민들과도 만나면서 서로 알아가고 청년들의 밭길이 닿는 곳마다 더 밝아지길 바란다"는 희망을 전했다.

•수다떠는 청년식당 참여 신청 및 문의:
꽃피는신뢰 031-778-7942 성남시자원봉사센터 031-757-6226~8

생태 이야기

때를 기다리는 양반나무, 대추나무

취재 김기숙 기자 tokiwife@naver.com



가을이면 붉고 단맛 나는 열매를 맺어 사람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해주는 대추나무는 갈매나무과에 속하는 낙엽성

관목으로 키가 5미터 정도 자란다. 대추나무는 봄에 다른 나무들이 부지런히 잎을 내고 꽃을 피우는데도 마치 죽은 나무처럼 느긋하게 지내다가 불현듯 때가 됐다는 듯이 연녹색 새순을 내민다. 그래서 조상들은 때를 기다려 잎을

내는 대추나무에게 양반나무라고 별명을 지어주었다.

잎이 나면 잘 보이지 않지만 대추나무에는 잎겨드랑이에 3센티미터가량의 제법 날카로운 가시가 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워질 때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이란 말을 쓰는데 아마도 잘 날던 연이 대추나무 가시에 걸려 나무에 매달려 버리는 데서 비롯된 것 같다.

결혼식 폐백에서 시댁 어른들께 절을 올리면 시부모는 대추를 신부에게 던져주며 이들 낳기를 소망했다. 대추는 과일뿐만 아니라 약방에서 보약으로 많이 사용됐다. 흥년에는 구황식품으로, 전쟁 때에는 군량으로도 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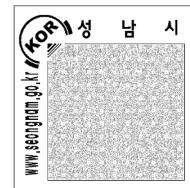
이렇게 요긴했던 대추의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로 조상들은 대추나무 시집보내기를 했다. 정월대보름과 5월 단오에 대추나무 가지가 둘로 갈라진 틈에 둘을 끼워 두는 것이다. 풍년을 기원하는 미신으로 여길 수 있는 대추나무 시집보내기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한다. 줄기 중간에 둘을 끼

워 두면 양분의 이동이 제한된다. 잎에서 만들어진 탄소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막고, 영양 생장에 필요한 질소가 뿌리에서 만들어져 위로 올라가는 것을 줄여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대추나무는 재질과 씨앗이 단단해 떡메와 도장, 목탁, 불상 등 공예품 재료로도 쓰였다. 조상들은 모질고 굳은 사람을 대추나무방망이라고 불렀고 키가 작고 빈틈없이 야무진 사람을 두고 대추씨 같다고 표현했다. 벼락 맞은 대추나무는 도장을 새기면 나쁜 것을 몰아내고 행운을 준다는 믿음이 있어 값이 높았다.

대추로 만든 음식으로는 약식, 대추밥, 대추전병, 대추차 외에도 조란(曹卵)이 있다. 대추를 쪘서 씨를 빼고 체에 걸러 꿀에 반죽해, 밤가루를 꿀에 절여 만든 소를 박고 다시 대추만한 크기로 빚어 잣가루를 묻혀 만든 것이다.

올해는 여름의 많은 비와 태풍으로 다른 해에 비해 과일값이 비싸다. 그래도 붉게 익은 가을 대추를 채 썰고 꿀에 절여 향기 좋고 맛 좋은 대추차를 만들어 겨울을 준비하고, 손이 많이 가지만 조란 같은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제23대 강정일당상 성남시 공예명장 제1호 홍연화 씨 선정

취재 이화연 기자 maekra@hanmail.net



성남문화원이 제정·시상하는 제23회 '강정일당상' 수상자로 지승공예가 홍연화(58·성남시 공예명장 제1호) 명장이 선정됐다.

'강정일당상'은 1986년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이후 한국의 문화 인물로 추앙받고 있는 조선 후기 여류문사 강정일당의 고귀한 인품을 기리고자 제정한 상이다. "작품활동을 하면서 여태까지 많은 상을 받았는데 이번 강정일당상 수상으로 더 큰 책임을 느껴요"라면서 두 손을 모으는 홍연화 명장. 1970년 성남에 터를 잡고, 시부모를 모시고, 누구보다도 큰 힘이 돼준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성장시켰다. 시아버지가 대한민국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 가족이다.

2016년 12월 성남시 공예명장 1호로 지정되면서 남한산성 공원 내 성남시민속공예전시관에 성남시 공예명장관이 마련됐다. 그동안 펼쳐놓지 못한 크고 작은 작품을 전시하고, 시민에게 활짝 문을 열어놓고 있다. 다양한 연령층에 맞는 지승공예 체험을 통해 우리 것을 알리고 보존하려는 노력이 대단하다. 지승공예 작품 한 점을 완성해 내는 작품 이야기를 듣노라면 한 장인의 의지와 인내력이 눈물겹다.

한지를 가늘고 길게 잘라 손끝으로 비벼서 끈을 만들고, 다시 겹줄을 꼬아 갖가지 기법으로 엮어 다양한 생활용품을 만드는 지승(紙繩)공예,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동반의 길을 탄탄하게 엮어가고 있다.

5년 전 홍연화 명장은 자신의 호를 따서 '경록지승보존연구회'를 설립하고, 제자들과 전통문화연구보존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 4~5월 제자들과 화엄사 성보박물관에서 '지승공예! 그 전통의 맥을 잇는 사람들展Ⅱ'를 개최하고, 전시작품들과 함께 15함 밭우, 천주함, 염주함 등을 선보여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요즘 홍연화 명장은 우리나라 유물 재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경매장에 나온 화살통을 구매해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2개를 재현해 냈다.

또 애초에는 우리 것이었지만 지금은 일본 민예관에



전시돼 있는 지승 방석을 6개월 만에 훌륭하게 구현했다. 지승 유물에 근거를 두고, 문양은 소장가치를 생각해서 전통문양을 넣어 재현했다. 편백나무 조각을 넣은 베개 한 쌍은 종이의 따뜻함이 그대로 느껴진다. 최근 완성한 순백의 '백자 달항아리'는 지승의 질감을 그대로 간직하고자 백자 그대로 두고 보려 한다고 했다.

홍 명장은 요즘 뜻자리(180cm, 120cm)를 짜기 위해 6개월 완성을 목표로 2개월째 혼신을 다하고 있다. "밤늦도록 1cm 엮는데 3시간 30분이 지나가지요. 그 날 하지 못하면 주말을 빌려 2cm를 엮어야 해요. 지루하고도 지루할 때가 있지만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도저히 해낼 수가 없어요. 세월과의 줄다리기, 인내와의 싸움에서 이겨내면 내년에는 훌륭한 지승 뜻자리를 시민들 앞에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의 수상경력, 전시경력은 나열할 수 없이 많다.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한국특별전에 '지승 갓 보관함'을, 지난해 밀라노와 도쿄전에서 한국공예의 법고창신전 '수묵의 독백' 작품을 전시해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다. 경록 홍연화 명장은 오늘도 제자들과 12월 성남아트센터에서 열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

01 강정일당상 수상자 지승공예 홍연화 명장

02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했던 갓집과 탕건집

03 백자 달항아리

04 일본이 가져간 우리의 지승 방석을 어렵게 재현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

Q. 임차인 A씨는 얼마 전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A에게는 2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임대주택의 명의와 그 보증금이 전부입니다. 망인과 함께 거주하던 A는 본인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한 후 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 했지만, 공동상속인인 자녀가 2명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속인인 엄마와 나머지 상속인인 미성년 아이들은 서로 이해상반관계라 상속재산분할협의 시에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고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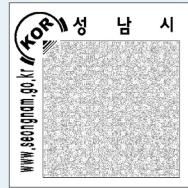
A. 민법 제921조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해상반행위란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여러 명의 자녀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공동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는 상속인 상호 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여러 명의 자녀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각각의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협의를 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판례 96다10270).

따라서 A씨의 2명의 자녀는 각각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그 특별대리인이 아이들을 대리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무한돌봄센터 법률홈닥터) 031-729-2493





시민의 마음을 얻는 성남시의회 경청하는 의회 정책 중심 의회 일하는 의회 공정한 의회 청렴한 의회

성남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개회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10월 12일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월 23일까지 12일간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조례 및 동의안 등 37건의 안건을 다뤘다.

또한 11월 열리는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했다.



성남시의회, 비대면 의정활동 준비 위한 시의원 교육



성남시의회는 의원별 비대면 의정활동 SNS교육 등을 실시하며 시민의 뜻을 경청하는 의회 구현에 힘쓰고 있다. 지난

8월 시의회는 언택트(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SNS를 통한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해 영상제작실 '미소방(미디어 소통방)'을 조성했다.

시의원들은 미소방을 찾아 SNS담당 직원으로부터 사진과 영상 편집, 카드뉴스 제작, 유튜브 활용법 등의 교육을 받았다.

또한 시의회는 10월 6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비대면 의정활동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의원들의 소통역량 강화를 위해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교육도 실시했다.

교육에 참석한 시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실습에 임하며 의정활동 시 줌을 이용해 실시간 쌍방향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시의회는 향후 소그룹 회의나 필수 교육을 할 때 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극복 위해 울동공원·모란시장 방역활동 실시



성남시의회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연일 방역활동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9월 26일 윤창근 의장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이하 코로나 특위) 강현숙 의원, 서은경 의원이 성남시자율방재단과 함께 울동공원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9월 28일에는 윤창근 의장을 비롯한 남용삼 문화복지위원장, 박호근 도시건설위원장, 선창선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뉴딜제안 특별위원장, 강신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부위원장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20여 명이 모란민속5일장 방역에 나섰다.

지난 두 달간 휴장했던 전국 최대 규모의 5일장인 모란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9월 24일부터 재개장을 했다. 시의원들은 모처럼 활기를 띤 모란시장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방역에 구슬땀을 흘렸다.

윤창근 의장은 "성남시의회는 시민들이 예전처럼 마스크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코로나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성남시작은도서관협의회와 정담회 개최

성남시의회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주관으로 9월 24일 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성남시 작은도서관협의회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상태 위원장을 비롯해 강신철 부위원장, 안극수 위원, 최현백 위원, 박은미 위원, 서은경 위원, 최미경 위원이 참석해

작은도서관 임원진과 작은도서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했다. 성남시작은도서관협의회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지원금 확대와 운영인력 지원을 요구했으며,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간 상호대차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전문가 초청 특강 실시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성남미래그리기포럼 2020(회장 조정식)'은 9월 22일 오후 3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정책'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탄소제로도시 실현, 활동친화도시 만들기, 지속 가능한 도시 농업, 감염병 위기기후 비상사태·경제 고용 위기 등 다중 위기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세계 각 도시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성남시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됐다.

이날 특강을 진행한 박용남 소장은 대전광역시 교통정책 자문관,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보행친화도시 조성 추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2005년부터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소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조정식 회장은 "특강을 통해 성남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상상력과 영감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됐기를 바라며,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참석자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1m 이상 거리 두기, 청강 인원 제한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안내

- **기간** 연중 수시
- **대상** 부모의 맞벌이, 다자녀, 취업 한부모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
- **이용요금** 시간당 1,483원~9,890원(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지원, 야간·휴일 추가부담)
- **내용**
 1. 시간제 돌봄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 부모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쟁여주기, 보육시설, 학교 및 학원 등 하원, 안전·신변 보호 등
 2. 영아종일제 돌봄 (만 3개월~만 36개월 이하 아동)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3. 질병감염아동돌봄 (보육시설 및 유치원아동, 초등학생)
 - 수족구병·독감·눈병 구내염 등 전염성 질병 감염 시 가정 내 돌봄서비스 제공
- **신청 및 문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idolbom.go.kr>) 가입 필수
 - 정부지원 가구(가·나·다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정부미지원 가구(리·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신청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752-9327

파이청년학교 2021년도 1학기 신입생 모집

- 파이청년학교는 자신의 특성에 맞게 나다운 진로를 준비하고 싶은 청년들과 함께합니다.
- **교육과정설명회** 11월 7일(토) 오후 2시, 12월 5일(토) 오후 2시
(홈페이지 예약 필수)
 - **커리큘럼** 비전과 자존감 회복 교육, 개인별 심리케어 및 멘토링
구체적인 진로 탐색 및 계획 하기, 동아리 활동, 외국어 교육과 글로벌 리더십 등
 - **장학금** 일반장학금, 근로장학금 지급 가능
- 파이청년학교 031-703-0104, www.pie-edu.com

파이심리상담센터 무료심리상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성남시민을 위해 무료심리상담 진행. 취업 스트레스, 진로문제, 우울, 불안, 대인관계의 문제, 사별, 이혼문제, 자녀문제 등으로 고민하는 분을 위한 1:1 상담 진행. 10회기 상담 무료진행. 기본심리검사 2개 포함.

- **대상** 청소년부터 성인 누구나 가능
- **기간** 연중 수시 모집

파이심리상담센터 031-703-0103

2020 성남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주민대상교육

**스마트폰으로부터
우리아이
지키기!!**

1차: 10/30(금)
10:00~12:00

"스마트폰 중독을 막고
아이와 소통하는 방법"
김현수
정신과 전문의

2차: 11/6(금)
10:00~12:00

"청소년 스마트폰 관련
범죄와 부모대응방법"
여건형
가톨릭대학교 탐정학과 교수



**코로나 19 시대!
부모들을 위한**

신청링크(<https://forms.gle/tCyp2eXUwbRnDzo8A>) 혹은
원쪽의 QR코드에 접속하여 신청하세요.

접속 방법
"ZOOM" 어플을 다운받고 당일 발송된 링크(Link)로 접속하면 끝!

문의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031)751-2768~9

SNAC 주민대상교육

성남문화제 제34회 성남문화예술제 시민백일장 공모전

- **공모기간** 10. 20 ~ 11. 10
- **대상** 초·중·고 학생 및 일반
- **주제** 성남사랑(시·수필)
- **보낼 곳** yyeji@hanmail.net(이메일 접수)

한국문인협회 성남지부 031-758-5090, 010-8528-5090

중원노인종합복지관

- '소통하는 리더들의 세대통합 프로젝트' 나눔공감 토론회
- 일시 10. 30(금) 오후 4시부터 유튜브 생중계
 - 대상 성남시 지역주민(성남시의 1, 2, 3세대)
 - 참여방법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유튜브 채널 접속
(<http://asq.kr/QuvYRH9l4bkR9>) 및 QR코드 접속



<ON-누리 축제>

- 행사참여 10. 12(월) ~ 11. 6(금)
- 지역주민 장기자랑대회 슈퍼스타J 10
11. 13(금) 16:00 유튜브 생중계
※ 유튜브 생중계 시 기념사·유공자 표창 및 공모전 시상 진행
- 참여방법 중원온누리축제 유튜브 검색 및 QR코드 접속



중원노인종합복지관 031-751-7450

새롬이새남이집 입소 안내

- **시설유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입소대상** 숙식보호 및 자립지원이 필요한 생후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 **입소기간** 2년(필요 시 6개월씩 최대 1년 연장가능)
- **입소절차** 전화 및 방문상담 후 입소결정
- **지원내용** 생계, 의료, 심리치료, 부모교육, 아이돌봄서비스, 취업 등 지원,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500만 원)

새롬이새남이집 031-755-5453, www.sshouse.or.kr

2020년 11~12월 시민 정보화 무료교육 일정

기관명	구 분	자격	교육기간	교육시간	인원	접수방법
(사)성남시 장애인 정보화협회	Windows10 & 인터넷 & 한글	장애인 및 가족, 성남시민	10. 5 ~ 12. 31	월·수·금	09:20~10:30	수시모집 010-5184-6884 (031-732-6884) ※ 과목과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컴퓨터 기초 멀티미디어		10. 5 ~ 12. 31	월·수·금	10:30~12:00	
	ITQ 한글		10. 5 ~ 12. 31	월·수·금	14:20~15:30	
	ITQ 엑셀		10. 5 ~ 12. 31	월·수·금	15:30~17:00	
	ITQ 파워포인트		10. 5 ~ 12. 31	화·목	10:00~12:00	
	포토샵(GTQ자격증반)		10. 5 ~ 12. 31	화·목	13:00~15:00	
수정도서관 (ZOOM 실시간 온라인 교육)	도전! ITQ 한글	성남시민	11. 3 ~ 11. 20	화~금	19:00~21:00	10. 26(월) 10:00~ https://www.snilib.go.kr/sj 평생학습지원팀(031-743-9600)
	비즈니스를 위한 엑셀 서식문서 만들기		11. 7 ~ 11. 28	토	10:00~12:00	
	도전! ITQ 엑셀		12. 1 ~ 12. 18	화~금	19:00~21:00	
	실력!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		12. 5 ~ 12. 19	토	10:00~12:00	
						11. 10(화) 10:00~ https://www.snilib.go.kr/sj 평생학습지원팀(031-743-9600)

* 중원·분당구청, 중앙·수정·중원도서관의 무료교육 일정은 해당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 729-6074, 분당구청 729-7078, 중앙도서관 729-4633, 수정도서관 743-9600, 중원도서관 752-3913



정성 치후원금이 만드는 숙한 정치문화

여러분의 정성이 담긴 정치후원금은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정치후원금센터 이용 장점]

- 후원회 계좌 확인 및
인적사항 신청 용이
- 후원내역 조회 및
영수증 간편 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정치후원금 연말정산 세액 공제]

-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금액은 25%까지)
-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국번없이) 126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 격려하자 사랑입니다

정치후원금센터 www.give.go.kr



명의가 전하는 건강 이야기

임신성 당뇨병, 산모가 주의해야 할 점은?



오태정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임신성 당뇨병은 임신 중 처음으로 고혈당이 발견된 상태를 말합니다. 임신 연령이 증가하고, 비만 또는 당뇨병 가족력과 같이 당뇨병의 위험 요소를 지닌 임신부가 증가하면서 그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임신부의 7.5%에서 임신성 당뇨병이 발견되며, 주산기 합병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임신 중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Q1 임신성 당뇨병 검사는 언제 어떻게 하게 되나요?

당뇨병의 과거력이 없는 임신부의 경우에는 임신 24~28주에 임신성 당뇨병 선별검사를 하게 됩니다. 50g 당부하 후 1시간 혈당을 측정해 140mg/dL 이상의 고혈당을 보일 경우 100g 당부하 검사(공복, 1시간, 2시간, 3시간째 채혈 검사)를 시행하는 2단계 방법이 있고, 처음부터 75g 당부하 검사(공복, 1시간, 2시간째 채혈 검사)를 시행하는 1단계 방법이 있습니다.

50g 당부하 검사를 할 때는 급식이 필요하지 않고 1시간째 혈당만 측정하면 되기에 편리한 면이 있으나, 75g 당부하 검사에 비해 2단계 검사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임신성 당뇨병이 조금 더 적게 진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료 환경에 따라 두 가지 방법 모두 사용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혈당을 측정할 때 손가락 끝의 모세혈을 이용한 간이혈당기를 이용해 측정하면 안 되고 정맥 혈을 채혈해 시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Q2 임신성 당뇨병이 진단되면 모두 인슐린 치료를 받게 되나요?

임신성 당뇨병의 치료 목표는 정상에 가깝게 혈당을 조절해 태아의 성장이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주산기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에너지 섭취와 활동량을 유지하면서도 혈당

조절이 불량할 때 인슐린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간혹 어떤 임신부들은 인슐린 치료가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해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기 위해 부적절하게 식이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태아의 적절한 성장에 지장을 주기도 하거니와 임신부의 에너지 결핍 상태가 추후 아이의 비만 증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현재 다양한 인슐린 주사제가 개발돼 있고, 특히 임신 중에는 태아에게 안전성이 확보된 인슐린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임신부가 출산 이후에는 인슐린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인

슐린 치료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과 회피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주치의와 영양상태 및 활동량을 점검한 뒤 필요한 경우 꼭 시기적절하게 인슐린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출산 이후 혈당 관리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출산 이후 6~12주째에 75g 당부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복혈당이 100mg/dL 미만이면서 2시간째 혈당이 140mg/dL 미만이면 정상 내당능(耐糖能, 생체에서 포도당을 대사하는 능력) 상태로 회복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신성 당뇨병이 있었던 것 자체가 출산 직후 혈당이 정상화됐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일반인에 비해 많기는 7배가량 높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임신성 당뇨병 임신부를 장기간 추적해보면 5년간 40%에서 당뇨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장기간 당뇨병 발생 여부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유수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신체 활동량을 늘리면서 정상체중으로 체중을 감량하고 유지하는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아두면 좋아요

코로나19로 폐쇄·업무정지·소독 처분 받은 사업장에 손실보상금 드립니다

- 영업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손실보상이므로 영업시간 외에 소독·폐쇄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음.
- 일반자급절차**
공적자료(세금신고)에 따라 전년도 영업이익, 고정비용 등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손실보상청구서 제출 후 3개월 소요)
 - 손실보상금: 전년 매출액과 소득기간 적용, 산출금액 지급(0원~)
- 간이자급절차**
매출증빙자료 등 별도 입증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자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처분 등 확인만 받아 10만 원(정액) 지급(손실보상청구서 제출 후 1개월 소요)

재난안전관 031-729-3560, 3570



성남시민 건강실천 프로젝트 10 ⑧

연령별 눈 건강 관리법

몸이 천냥이면 눈은 구백냥!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눈 건강을 지킵시다.

눈이 피로한 청소년을 위한 근시를 예방하는 올바른 습관



- ★ 독서는 바른 자세로!
책과 눈 사이는 30cm 이상 떨어뜨려요.
- ★ 1시간쯤 독서한 뒤 10분쯤 먼 곳을 바라보세요.
- ★ 실내조명은 균일하고 적당한 광도를 유지하세요.
- ★ 너무 작은 글씨나 선명하지 못한 글씨는 오래 보지 마세요.
- ★ 영양공급을 충분히하고, 정기적 눈 검사를 받아요.

눈이 뻐뻑한 2030대를 위한 안구건조증 예방 관리 Tip



- ★ 컴퓨터 작업 시에는 50분에 한 번씩, 10분 정도 휴식을 취해요.
- ★ 물을 자주 마시고 인공 눈물을 넣어 주세요.
- ★ 건조하고 밀폐된 공간이라면 환기를 시켜요.
- ★ 장시간 렌즈 착용은 금물!

눈이 침침한 중장년층을 위한 백내장 예방하는 생활습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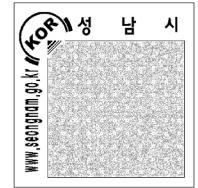
- ★ 40대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 정기 눈 검진을 받으세요.
- ★ 술을 줄이고, 금연하세요.
- ★ 자외선이 강한 날에는 선글라스나 모자를 착용해요.

평생 건강을 위한 첫걸음, 영양플러스 사업

엄마와 아기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다양한 영양교육과 함께 균형된 영양 섭취에 도움이 되도록 보충 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사업내용** 대상유형(임신부, 영아, 유아, 출산수유부)별 6가지 패키지 식품공급(매월 2회)/ 영양교육상담: 식생활 관리, 이유식, 반협, 편식, 저체중, 아토피 등/ 주기적 영양평가(회/6개월)
- 모집기간** 연중(수시 접수) 09:00~18:00(점심시간 제외)
- 신청방법** 전화 접수(거주지 보건소)
- 신청기준** 성남시 거주 임산부 및 64개월 미만 영·유아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이며 반협, 저체중, 저신장, 영양섭취부족 등 영양위험 보유자

* 단, 임신부는 거주, 소득, 대상 기준 충족 시 대상자로 선정됨
수정구보건소 031-729-3881, 중원구보건소 031-729-3920
분당구보건소 031-729-4006



장서각 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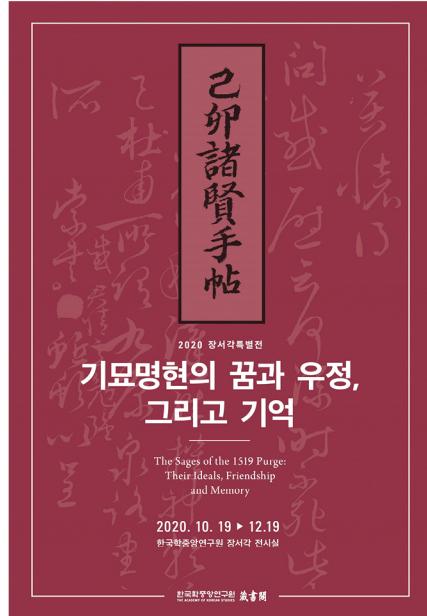
글씨로 만나는, 기묘사화(己卯士禍)로 못다 핀 젊은 선비들의 두터운 우정

기묘사화는 1519년(중종 14) 11월 15일 훈구 대신들에 의해 조광조, 김정, 김식 등 사립들이 화를 입은 사건이다. 중종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중종은 신진 사림들을 등용해 성리학의 질서로 조선을 이끌고자 했다. 그러나 사립파의 강경한 정치적 요구는 기존의 훈구파와 갈등을 유발했다. 이로 인해 기묘사화가 발발했고 신진 사립의 꿈은 짧은 실험정치로 끝나면서 좌절됐다. 이들은 후에 '기묘명현(己卯名賢)'이라 불리며 조선시대 선비들의 귀감으로 여겨졌다.

한국학중앙연구원(성남시 분당구) 장서각에는 순흥안씨 사제당(思齊堂) 종중에서 기탁한 『기묘제현수필』(보물 제1197호)과 『기묘제현수첩』(보물 제1198호) 두 필첩이 보관돼 있다. 『기묘제현수필』은 사제당 안처순(安處順, 1492~1534)이 구례현감으로 부임할 때 24명의 지인이 써준 송별시를 모은 첩이고, 『기묘제현수첩』은 1517~1531년 사이에 12명의 지인이 안처순에게 보낸 편지를 모은 첩이다.

시와 편지의 작성자는 조광조(趙光祖), 김정(金淨), 기준(奇遵), 한충(韓忠) 등의 기묘명현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박상(朴祥), 신광한(申光漢), 정사룡(鄭士龍)의 경우처럼 16세기 조선 문단을 이끌던 문장의 대가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두 첩에 실린 글들은 대부분 기묘명현의 친필 목적이며, 그들의 음성과 동정, 회한과 좌절, 애환과 우정이 매 글자와 문장 속에, 모든 필획과 한 줄 한 줄에 투영돼 있다.

두 첩에서 기묘명현의 거창한 사상이나 문예적 성취



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들의 우정과 연대의식, 벼슬살이와 귀양살이의 실상을 가까이 들여다볼 수 있다. 시와 편지에 담긴 그들의 목소리는 우리가 역사 속 그들을 감정이 살아있는 한 명의 사람으로 대면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기묘사화 후 유배지에서 안처순에게 보낸 편지에는 그들의 좌절감과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불안함이 그대로 투영돼 있다. 진도(珍島)로 이배된 김정(金淨)은 “저는 죄가 무거워서 저들의 사정거리 속에 있으니 며칠이나 더 살겠습니까?”라며 체념의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유배지 남해에서 김구(金絃)는 “저는 본래 기피해야 할 인물

이므로 감히 맞이할 수 없습니다만, 자취를 감추어 오신다면 굳이 거절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심사숙고하여 신중히 출발해야지 경솔해서는 안됩니다”라며 안처순의 비밀리의 방문 소식에 걱정과 고마움을 표현한다. 사소한 부탁, 농담, 격려 등이 섞여 있는 글자 속에서 그들의 두터운 우정을 확인할 수 있다. 장서각은 깊어가는 가을에 기묘명현의 글씨를 통해 만날 수 있는 소소한 감동의 자리를 마련했다. 2020년 장서각 특별전 ‘기묘명현(己卯名賢)의 꿈과 우정, 그리고 기억’은 10월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열린다. 통상 전시라고 하면 눈으로 ‘보는 방식’으로 꾸며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 전시는 ‘보는 방식’에 ‘읽는 방식’을 상당 부분 가미했다. 전시를 통해 글자 속에 투영된 역사적 맥락과 인문학적 코드를 읽는 즐거움을 관람객들이 느끼길 바란다.

기묘명현이 세상을 떠나고 한참 지나 그 글씨를 마주한 송시열은 두 필첩의 가치를 네 가지로 설명했다. 그 글이 뛰어나고, 글씨가 뛰어나고, 사람이 뛰어나고, 필적이 오래되어 희귀하다는 것이다. 송시열의 탁월한 안목을 믿고 장서각에서 그들을 만나보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전시는 코로나19에 따라 주 3회(월·수·금) 오전과 오후 예약제로 운영한다(이메일 jsg2020@aks.ac.kr 예약). 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www.aks.ac.kr)에서도 장서각 전시실을 그대로 구현한 온라인 전시관(VR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영화 속 클래식 음악

'산속 마왕의 전당에서' 영화 <소셜 네트워크> & 그리고 <페르 퀸트>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활동이 장려되는 요즘이다. 인간관계에서도 대면보다는 비대면이 권장되는 이 시기에 다시 한 번 꺼내 보면 좋을 영화로 〈소셜 네트워크(감독: 데이비드 펀처)〉를 선정하며 더불어 그 속에 담긴 클래식 음악, 그리고의 〈페르 퀸트〉 중 '산속 마왕의 전당에서'를 소개한다.

2010년 개봉된 영화 〈소셜 네트워크〉(원제: The Social Network)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페이스북(Facebook)'의 탄생 과정에 얹힌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영화 속에는, 여자 친구에게 차인 하버드생이 횃김에 별인 못된 장난으로 시작해 정식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6개월 만에 가입자 백만 명을 돌파하기까지, 페이스북에 관련된 사람들의 성공에 대한 욕망, 우정, 배신, 소송 등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영화 중반, 영국 템스강에서 열리는 '헨리 로얄 레가타' 장면은 '페이스북'이라는 소셜 네트워크의 아이디어 소유권에 대한 법정 공방을 벌였던 하버드생 윌클보스 형제가 조정 경기를 하는 장면이다. 긴장감이 극에 달하는 이 장면에 사용된 음악은 노르웨이 작곡가 그리그의 〈페르 퀸트〉 작품번호 23에 나오는 '산속 마왕의 전당에서'다.

헨리 입센의 극시 『페르 퀸트』의 부수음악인 이 작품은 몰락한 부농의 아들 페르 퀸트가 자신의 허황된 꿈을 좇아 환상과 현실의 세계를 오가며 도험을 펼치는 이야기를 묘사한다.

영화에 사용된 음악 '산속 마왕의 전당에서'는 주인공 페르 퀸트가 산속 마왕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 마왕 앞에 선 장면으로, 페르 퀸트를 둘러싼 채 못살게 굴고 협박하는 요괴들로 가득한 산속 마왕의 전당 모습을 표현한다.

자신을 왕자라고 속이고 산 속 마왕의 딸과 결혼하려는 페르 퀸트에게 산속 마왕의 딸을 뺏기지 않으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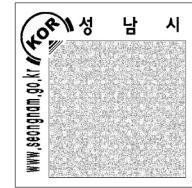
요괴들의 요란법석한 소리가 '페이스북'의 아이디어 소유권을 놓고 뺏거나 뺏기지 않으려는 법정 공방을 암시하는 조정 경기 장면의 아슬아슬함을 극대화한다. 영화 〈소셜 네트워크〉의 원작은 벤 메즈리치의 『소셜네트워크: 페이스북 그 우연한 시작, 쳐절한 배신, 화려한 성공 이야기』(오픈하우스, 2010)다. '페이스북'을 둘러싼 더 깊은 이야기를 원하는 독자들에게 추천한다.

*유튜브에 '비전성남 영화속클래식 소셜 네트워크'를 입력하면 관련 영상과 음악을 찾을 수 있다. 영화 <소셜 네트워크> DVD 보유 도서관은 중앙·분당·수정·중원·판교·구미 도서관이다.



유튜브 연결

취재 조윤수 기자 chyooonsoo@gmail.com



11~12월 프로그램



프로그램	교육일정	대상	내용
슬기로운 랜선생활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전체	드라이브 스루를 통한 체험 키트 배포 후 집에서 함께하는 비대면 환경교육 프로그램
숲놀이학교	화~금요일 10:00~10:50 11:00~11:50	5세 이상 단체	계절에 따른 숲놀이 프로그램 - 11월: 요술쟁이 단풍잎/ 12월: 겨울왕국 ※ 우천 시 우의(우산) 준비
환경아 놀자!	화요일 11:00~11:50	6~7세 단체	동화와 체험활동을 통한 환경 실천 교육 - 11월: 북극곰에게도 냉장고가 필요해?/ 12월: 눈 오는 날
자연관찰학교	화요일 15:30~17:00	8~11세	생태 체험 정기 모니터링(1회 신청 시 2개월 정기참여) - 11월: 겨울 채비/ 12월: 겨울 숲
에코키즈팩토리	수요일 13:00~14:00 15:30~16:30	8세 이상 단체	천연제품 만들기를 통한 환경 안전 프로그램 - 11월, 12월: 코가 간질간질
에코키즈카페	금요일 15:30~17:00	5~7세 어린이 1명 + 보호자 1명	생태환경 체험 활동 - 11월: 겨울을 준비하는 우리들과 숲 속 친구들 - 12월: 핫! 핫! 겨울 즐기기
신나는 전래놀이	토요일(가족) 일요일(개인) 10:30~12:00	5세 이상 가족 8~10세 개인	작접 만든 놀이도구로 하는 전래놀이 - 11월: 딱지놀이/ 12월: 신문지 투호놀이
놀며 배우는 기후학교	토요일 13:00~14:30	8~12세	기후변화에 에너지를 게임과 놀이로 재미있게 배우는 프로그램 - 11월: 탄소발자국 조사단 - 12월: 온맵시로 겨울 멋쟁이(지구를 살리는 습관)
하나 되는 기후가족	토요일 15:00~16:30	8세 이상 가족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향상 및 개선을 위한 가족 프로그램 - 11월: 나는 팽귄이야(기후변화) - 12월: 앗 뜨거워요(온도)
리틀 포레스트	일요일 13:00~14:30	5세 이상 가족	자연놀이로 생태적 지식과 감수성을 기르는 가족 힐링 프로그램 - 11월: 가을을 즐겨요/ 12월: 날 좀 보소(동지)
가치 찾는 에코공방	일요일 15:30~17:00	7세 이상 가족	버려지는 물건들의 재활용인 리사이클과 업사이클을 알아보고, 가족과 창작물 리폼 및 소품 제작 프로그램 - 11월: 재활용품을 이용한 악기 만들기 - 12월: 헌책을 이용한 작품 만들기

*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운영 상황에 따라 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관 홈페이지 및 전화문의

* 참여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무료 신청. 매월 1일(휴일인 경우 전후)부터 다음 달 분 예약 가능

판교환경생태학습원 <http://ppark.seongnam.go.kr>, 031-8016-0100



11월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교육일정	대상	내용
에코키즈 A	화~금 오전/오후	유아단체 (5~7세)	11월 : 오색 빛깔 나뭇잎
에코키즈 B		초등단체	
맹산 숲속이야기	토·일 오전/오후	유아가족 초등가족	환경부 인증 프로그램. 월별 주제에 따라 진행
가족목공교실	토·일 오전/오후	유아가족 초등가족	기후변화시대 목재 사용 이유를 알고 다양한 소품 만들어 보기 - 4분기 : 스트링아트
절기 따라 생태원 가요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오후	초등가족	24절기를 배워보고 절기에 맞는 활동을 체험
숲속 이야기극장	수요일 오전	5~6세	재미난 이야기를 각색한 환경생태 동극 및 오감 체험놀이 / 4분기 : 콩 세 알과 우령각시
병아리환경교실	목요일 오전 11시	유아단체 (3~4세)	영유아 단체를 위한 오감 체험 중심의 둘러보기 활동
셀프생태탐사	상시	가족	QR코드를 활용해 아이들과 부모님이 야외학습장을 둘러보며 미션과 활동하는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집콕목공		가족	워크·드라이브 스루를 통한 교구꾸러미 배부 후 가정에서 설령책자를 보고 완성해보는 환경활동 프로그램
가족을 위한 마스크지킴이		가족	
엄마의 지구사용설명서		성인	워크·드라이브 스루를 통한 교구꾸러미 배부 후 가정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보며 다양하게 환경활동에 참여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자원순환이야기		가족	
지구가 건강한 밥상		가족	
자연을 담다	상시	가족	유튜브 동영상을 미리 생태원의 모습을 보고 생태원 숲을 방문해 찾아보는 프로그램
함께하는 자연	별도협의	장애인	장애인 단체를 위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에코틴	별도협의	청소년	환경동아리와 중고등학생을 위한 환경프로젝트
전시관람	상시	전체	2가족 10명 이내로 입장 제한 - 개구리·나무·곤충 이야기 둘러보기
자원봉사활동	별도협의	청소년/단체	도슨트, 환경정화, 작은도서관, 모니터링 등
맹산환경생태학습원 유튜브(Youtube)	상시	전체	생태원이야기, 프로그램 등 생태원 소식이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 맹산환경생태학습원] 검색 후 구독하고 다양한 영상으로 확인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세부내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모든 관람객은 건물 입장 시 발열체크하고 방문객 일일점검표 작성이나 QR인증(전자출입명부)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입장장을 제한합니다.

* 개인 및 가족 예약의 경우 매월 5일 전후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접수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 준비물이 있는 경우 사전고지. 프로그램 개설 및 세부일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바람.

맹산환경생태학습원 <http://mpark.seongnam.go.kr>, 031-702-1192



11월 프로그램

성남시(은행)식물원

프로그램	교육일정	대상	내용
숲으로~ 숲으로~	월·수·금요일 오전 / 오후	유치부 ~ 초등부	식물원 탐방·관찰·놀이로 진행하는 식물원 기본프로그램
곤충 나라 새(鳥) 나라	화·목요일 오전 / 오후	유치부 ~ 중등부	새와 곤충의 먹이피라미드 관계를 알아보고 유아 누리과정과 초등부 교과연계가 가능한 프로그램
고고~ 튼튼 숲 놀이	화·목요일 오전 / 오후	유치부 ~ 초등부	유아 숲 놀이와 숲 체육 놀이를 계절별에 맞게 월별 다른 구성으로 진행하는 바깥 놀이 프로그램
곱게 곱게 숲 리듬 놀이	화·목요일 오전 / 오후	유치부 ~ 초등부	신체발달 단계에 맞게 자연 놀이와 숲 치유, 원예치료 접목
누구나 숲 치유 & 원예치료	화·목요일 오전 / 오후	청소년 ~ 성인	청소년 이상 성인프로그램. 도시 숲에서 치유와 원예체험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흙산 놀이터 (흙 놀이 체험)	격주 토요일 (오전 / 오후)	유치부 이상 가족	일정한 공간에 조성된 황토를 이용해 흙 놀이·그림·표현 등을 할 수 있는 연간 운영 프로그램. 단체는 연초 신청 6회차 운영, 주말 가족은 홈페이지 신청으로 교육 가능
뚝딱뚝딱 공작 교실	월1회 토요일 오전	가족	식물원 탐방과 자연의 부산물을 활용해 자연물 만들기와 공작을 진행하는 가족 프로그램
식물원 두드림 (DO DREAM)	주1회 월요일 오후	청소년 단체	자유학기제, 중·고 CA활동을 위한 청소년 목재체험. 버닝기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활동(중·고등 단체)
우드버닝에 빠지다	격주 토요일 1·3주 오후	초등 고학년 이상	목재에 버닝기를 이용해 나만의 작품을 완성하는 목공예프로그램(주말)

* 참여방법 : 홈페이지 접수. 프로그램 개설 여부와 내용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우천 시에도 교육을 진행합니다.

* 세부일정 : 성남시(은행)식물원(www.epark.seongnam.go.kr) 홈페이지 참조

성남시립(은행)식물원 031-729-4319, 녹지과 031-729-4312



곤충 나라 새(鳥) 나라

곱게 곱게 숲 리듬 놀이

흙산 놀이터

뚝딱뚝딱 공작 교실

우드버닝에 빠지다

성남시 목공체험장

프로그램	교육일정	대상	체험비	내용
월넛 도마		중등부 이상	18,000원	월넛(호두나무)을 이용한 짙은 색상의 도마
캄포 도마			23,000원	천연 향균 성분이 뛰어난 캄포나무로 만든 도마
좌탁		성인 대상	19,000원	직사각형의 테이블로 다리는 고정식 좌식테이블
발판 (디딤판)	주중·주말 (3시간) 09:00~12:00 14:00~17:00		11,000원	발 받침대 또는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사용이 가능한 나무 받침판
독서대		초등부 이상	6,000원	책 또는 태블릿PC를 거치할 수 있는 독서대
스텝스툴		성인 대상	19,000원	화분 받침대 또는 2단 계단용 목공예품
애완동물 밥그릇 거치대		중등부 이상	6,000원	고양이 또는 강아지를 위한 애완동물 밥그릇 거치대(직접 애완동물의 키에 맞출 수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프로그램이 변경될 수 있으니 전화 연락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시간 오전(09:00~12:00), 오후(14:00~17:00) 진행하며 주중은 오후만 진행합니다.

* 체험비(재료비+체험료)는 홈페이지 접수 시 결제 가능하며 결제 완료 후 참여 가능

* 참여방법 : 성남시(은행)식물원 www.epark.seongnam.go.kr → 목공체험장 예약신청 → 교육프로그램 선택 → 날짜 클릭 → 예약하기

성남시(은행)식물원 031-729-4319



성남시청소년재단 바야흐로 청소년 세상

기관	프로그램	일정	장소	대상	내용	접수	문의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온라인 청년지원센터	연중	온라인	청년 (만 19~34세) 청년 10명 (만 19~34세)	- 성남시 온라인 청년지원센터(www.snspring.or.kr) 센터 소개, 프로그램, 청년info, 센터 소식, 멤버십 - 특강 : 직장인의 이직과 퇴직 - 마음과 몸 건강을 결합한 관계형성 프로그램. 비건 음식을 먹으면서 청년 대화의 장 마련. 진로, 취업, 관계, 직장, 관심사 등 고민 - 대화와 치유 프로그램. 진로, 취업, 관계, 직장, 관심사 등 고민 - 다양한 무료 원데이클래스 제공 - 앙코르 취미클래스 운영	홈페이지 접수 www.snspring.or.kr	070-4908-2090~3
	청년 진로·취·창업 멘토링	11. 3(화) 19:00~21:00					
	청춘상담소 '비건다이닝'	11. 6(금) 19:00~21:00					
	청춘상담소 '마음지기'	11. 20(금) 19:00~21:00					
	문화예술클래스 '취미제작소'	11. 11-25(수) 19:30~21:30					
수정 청소년수련관	케렌시아	연중	수련관 1층 케렌시아	관내 청소년 (9~24세)	- 코로나19 대응, 코로나블루에 자친 청소년에게 혼자만의 공간, 자유로운 쉼 제공 - 글램핑, 샌드백, 벽낙서, 크라이어 등 자유이용 - 1일 1회 90분, 최대 4명(가족에 한함)까지 이용가능	유선문의	031-729-9233
증원 청소년수련관	꿈트리클래스	11~12월(토·일)	수련관 꿈트리공방	청소년 및 성인	- 목공지도사 3급 양성과정(30시간 이상 이수) - 목공 전문교육(서랍장, 의자, 테이블 등 7개 작품) - D.I.Y, 디자인, 목재종류 및 공구사용법 교육 - 참가비 : 1인 34만 원 ※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유선문의	031-729-9332
분당 서현 청소년수련관	온(溫) & 온(동네) 학습지원사업	10. 12(월) ~ 12. 31(목) 09:00~13:00	수련관	초·중·고 청소년	- 온라인 수업 장소 지원 - 온라인 수업 접속 관리 및 수업 일정 관리 - 온라인 수업 일정 후 수련관 시설 이용(도서관 및 자율학습 공간)	홈페이지 참가신청서다운 및 작성 후 이메일 접수	031-729-9433
분당 정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안전망 전문가 멘토	연중	수련관	직종별 실무자	- 청소년 교육 및 여가, 상담, 놀봄, 안전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별 전문가 인력 자원풀 운영 - 진로탐색, 직업체험, 상담 등 보편적 청소년 서비스 지원	유선문의	031-729-9560
분당 판교 청소년수련관	학습재능나눔단 '한울' 멘티 모집	11~12월	수련관 및 온라인	초등학생 00명	오프라인(분당교청소년수련관) 및 온라인(ZOOM 또는 구글클래스룸)을 이용한 고등학생 멘토와 수학·과학·영어 비대면 학습 및 실험영상 제공	홈페이지 참조 및 유선문의	031-729-9655
분당 야탑 청소년수련관	제10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아이디어 맛.ZIP'	11. 9 ~ 11. 28	수련관 및 온라인	만 9~24세 누구나	- 청소년의 의견이 성남시의 정책으로? - 빅데이터 기반, 현재의 사회문제 및 이슈에 관한 청소년의 생각을 펼치는 제안대회 - 10. 26(월) : 성남시 정보를 담은 빅데이터 공개(www.snyouth.or.kr/hellomonya) - 11. 9(월) ~ 13(금) : '아이디어 맛.ZIP' 제안서 접수기간 - 11. 18(수) : '아이디어 맛.ZIP' 예선대회 결과발표 - 11. 28(토) : '아이디어 맛.ZIP' 본선대회,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빅데이터 퀴즈대회	온라인 홈페이지 (www.snyouth.or.kr/ hellomonya)	031-729-9835
양지동 청소년문화의집	온(溫) & 온(동네) 학습지원사업	11. 2(월) ~ 11. 30(월)	문화의집 및 온라인	초등~중등	- 대학교 연계 청소년 온라인 학습·진로 지원 - 학습공간 제공, 심리정서프로그램 연계	유선문의	031-729-9951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	무료 출력서비스	연중	문화의집	남녀 노소 누구나	- 멀리 갈 필요 없이 언제든 이용 가능한 무료 출력 서비스 - 인쇄 시, 개인 USB 또는 메일로 인쇄물 송부 후 사용 - 이용 가능 시간 : 오전 10시~오후 8시(월~주말은 오후 5시까지)	(휴관 시) 은행동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사전 유선연락 후 이용 가능	031-729-9900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무료 온라인 심리검사	연중	온라인	성남 거주 만 9~24세	- 무료 온라인 진로 및 성격, 학습유형검사 - 신청방법 :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검사신청 및 동의서를 작성 후, sn1388@snyouth.or.kr로 첨부해 발송	유선문의	031-729-9133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영 일정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기관 홈페이지 및 유선 문의

성남시청소년재단 <https://www.snyouth.or.kr>

11월 도서관에서는

구미도서관 온라인 '마티네 북(Book)콘서트' 운영 네 번째 강연 '내 안의 이야기로 시작하기'

작가이자 그림책 심리학자인 신혜은 교수와 함께 그림책을 통해 참여자들이 스스로 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자기 이해와 성찰의 시간, 예술적 치유의 경험을 가져본다.

- 일시 11. 28(토) 오후 2시 ○ 장소 온라인강의(Zoom)
- 대상 성남시민
- 강연접수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https://www.snlib.go.kr/gm>) 접속 후 문화마당 → 수강신청

구미도서관 031-729-4693 <https://www.snlib.go.kr/gm>

수정도서관 독서·문화 행사

* 온라인 수강을 위한 필요사항(PC 또는 노트북, 스마트폰)

강좌·행사명	일시	대상	장소	접수방법
길 위의 인문학	10. 14(수) ~ 10. 28(수) 19:00~21:00	청소년 및 성인	Zoom 온라인수업	홈페이지 접수
	10. 31(토) ~ 11. 14(토) 16:00~18:00	초등 4~6학년		
	10. 31(토) ~ 11. 14(토) 14:00~16:00	성인		
북드림 책놀이 친구	10. 29(목) ~ 11. 26(목) 16:00~18:00	임산부 10명		- 접수 : 홈페이지→수강신청 - 내용 : 예비맘을 위한 태종 아기와의 행복한 교감, 우리 아이만을 위한 태교일기책 제작
	10. 30(금) ~ 11. 27(금) 15:30~16:50	1~4세 & 보호자 10가족		- 그림책을 통해 영아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독후활동
	10. 31(토) ~ 11. 28(토) 15:30~16:30	5~7세 & 보호자 10가족		- 그림책을 통해 유아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독후활동
	12. 8(화) 10:00~12:00	부모 30명		- 부모와 역할에 대한 정의와 함께 부모로서의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
5060세대를 위한 북(book) 마실 '온고지자 낭독클럽'	11. 17(화) ~ 12. 22(화) 10:00~12:00	자신의 언어와 목소리로 소통하고 싶은 50세 이상 성인	줌(ZOOM)을 통한 온라인 수업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10. 26(월) 10:00부터

수정도서관 031-743-9600 <https://www.snlib.go.kr/sj>

중원도서관 2020년 어린이 평생교육

2020년 하반기 문화교실(창의적 인재양성 학습서비스)

○ 일시 11. 24(화) ~ 12. 19(토) ○ 접수 11. 9(월) 10:00 ~ 11. 15(일) 18:00 강좌별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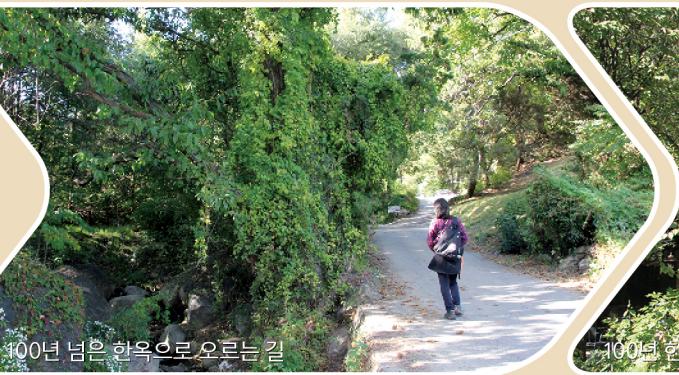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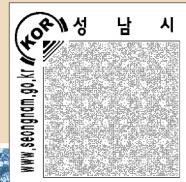
강좌명	교육일시	대상	교육내용	진행방법
책과 함께하는 미술활동	11. 24 ~ 12. 15 (화)16:00~18:00	초 3~4년 6명	인물 그림책을 통해 위인들의 지혜로움 을 배우는 수업 ※ 재료비 : 5천 원	비대면/ Zoom
스토리텔링 영어동화	11. 18 ~ 12. 16 (수)15:00~16:00	초 1~2년 6명	영어 그림책을 바탕으로 외국 문화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영어와 친숙해지는 스토리텔링 ※ 교재비 : 1만5천 원	비대면/ Zoom
	11. 18 ~ 12. 16 (수)16:00~17:00	6~7세 6명		
고전으로 만나는 시사통합논술	11. 21 ~ 12. 19 (토)10:00~12:00	초 4~6년 8명	책 읽기로 알아낸 자식을 바탕으로 나만의 분석과 해석 새로운 상상력을 만들어 내는 수업	비대면/ Zoom
그림책 보드게임과 만나다	11. 21 ~ 12. 19 (토)13:00~14:30	초 4~6년 10명	보드게임 사전활동으로 세계문화 관련 도 서를 읽음으로써 책과 친숙해지는 활동 ※ 재료비 : 1만 원	※ 대면 수업 시 운영
	11. 21 ~ 12. 19 (토)14:30~16:00	초 3~5년 10명		
흥미유발 역사 이야기	11. 21 ~ 12. 19 (토)13:00~14:30	초 4~6년 8명	역사의 흐름을 익히고 시대별 이야기를 통해 배경자식 습득 및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는 과정	비대면/ Zoom
	11. 21 ~ 12. 19 (토)14:30~16:00	초 2~3년 8명		
나는야 과학 실험왕	11. 21 ~ 12. 19 (토)14:00~15:30	초 1~3년 8명	전기회로, 좌석 등 일상생활의 과학적 현상을 이해하는 과학실험 ※ 재료비 : 2만 원	※ 대면 수업 시 운영
	11. 21 ~ 12. 19 (토)15:30~17:00	초 2~4년 8명		

2020년 하반기 어린이 독서회(3기) ○ 모집 11. 9(월) 10:00~마감 시

강좌명	교육일시	대상	교육내용	진행방법
글로벌 영어독서회	11. 21 ~ 12. 19 (토)14:00~15:00	초등 4~6년 8명	영어책에 대한 단순읽기를 벗어나 work book쓰기를 통해 어휘와 패턴 익히기	※ 대면 교육 시 진행
	11. 21 ~ 12. 19 (토)14:00~15:00	초등 1~2년 8명		
	11. 21 ~ 12. 19 (토)15:00~16:00	초등 3~4년 8명		
	11. 21 ~ 12. 19 (토)16:00~17:00	초등 5~6년 8명		
하브루타독서회			하브루타로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고 표현력을 기르는 활동	비대면 (Zoom)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영일정이 변경 또는 중단되거나 도서관 재개에 따라 대면교육 혹은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중원도서관 031-752-3913, <https://www.snlib.go.kr/jw>



100년 넘은 한옥으로 오르는 길



100년 한옥카페



누비길 7구간으로 이어지는 코스모스길

한적한 농촌 풍경서 무르익은 가을을 만나다

마음이 머무는 동네, 오야동

취재 윤해인 기자 yoonh1107@naver.com
취재 박인경 기자 ikpark9420@hanmail.net



“엄마~”

그 골목 누군가의 집에 마실 나가 있을 엄마를 찾아 나선 기분이다. 동선을 정하고 움직이기보다는 발걸음 닿는 대로, 마실 나간 엄마를 찾아 나선 기분? 어릴 적 소풍 가서 보물찾기하는 동심으로 이 골목 저 골목을 기웃거려보는 재미가 있는 오야동이다.

아파트가 줄지어 서 있는 동네와 달리 높지 않은 집들이 모여 있는 오야동의 한적한 골목길은 정겹고 따뜻했다. 신촌동 행정복지센터(오야·심곡·신촌)를 시작으로 동네 나들이를 시작했다. 줄지은 듯 반듯하지 않고 구불구불 이어지는 길에 모퉁이를 돌 때마다 호기심이 솟았다.

담장 안에 있는 감나무, 대문 옆 사철나무, 살구나무, 동네 텃밭과 마당에 있는 깻잎, 고추, 가지… 담장 위를 지나온 호박 줄기에서 애호박 하나가 “무슨 일로 오셨어요?”라고 인사하는 듯한 풍경이 정겹다. 집 주위로 꽃이 많아 바라보느라 걷는 속도가 느려진다. 자연과 동네가 잘 어울리는 오야동이다.

동네 곳곳에 눈길을 주며 걷다 100년이 넘었다는 한옥을 만났다. 한옥 카페로 유명한 곳이다. 쌍화차 냄새가 마당 가득 넘쳐흐른다. 오래된 느티나무가 한옥 뒤 아트막 한 구릉에 서 있다. 성남시 보호수로 지정된 300년 된 나무다. 느티나무를 지나 계단을 오르니 저 멀리 서울공항 활주로와 가을 하늘이 군데더기 없이 마주 보고 있다. 언덕에 잠깐 서 있는 동안 물까지가 떼 지어 날고 꿩이 푸드득 날아오르는가 싶더니 딱따구리가 빨간 깃털만 살짝 보여주고 빠르게 지나간다. 멧비둘기와 어치는 나무 사이로 숨어들었다 나오기를 반복한다. 팔중이도 풀썩 나는 것처럼 뛰었다.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한옥카페를 지나 내려오다 천주교 오야동 공소에서 걸음을 멈췄다. 영사기를 빨리 돌리는 것처럼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는 성남의 또 다른 시간이 골목길에 있었다. 120년 전 자리잡아 2003년 새단장한 공소는 오야동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공소는 우리나라 천주교회의 첫 모습이다. 사제가 상주하지 않아 사제가 방문할 때만 성사가 이뤄진다.

신촌동 행정복지센터로 돌아와 섰다. 길 건너 구릉에서 묘를 정비하고 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병자호란 당시 영의정이었던 최명길의 아버지 최기남의 묘라고 한다.

오야오소 작은도서관 옆으로 난 길로 걸음을 옮겨 오르막길을 조금 오르니 코스모스가 길가에서 한들거리며 누비길로 안내했다. 감나무에 달린 잘 익은 감을 물까지들이 사이좋게 쪼아먹으며 가을을 즐기고 있



다. 누비길 7구간, 인농산 길이다. 이정표가 여러 방향으로 갈라져 있다. 길을 정해 누비길을 누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길을 걷다 멈추고 지나온 길을 자꾸만 뒤돌아보게 된다. 마음이 머무는 동네, 굳이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이 가을의 물들을 누리며, 동심을 그리며 마냥 둘러봐도 좋을 곳, 오야동이다.

01 한옥카페 뒤 언덕에서 바라 본
서울공항 활주로

02 성남시 지정 보호수 300년 된 느티나무

03 감을 쪼아먹는 물까지들

04 넓적배사마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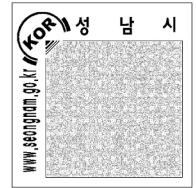
05 누비길 7구간 이정표



01



05



함께 만드는 비전성남

*essay***‘인사’라는 선물**

유병화 분당구 서현동

공기업에서 정년퇴직하셨다는 우리 경비실 박 선생님은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른아이 구분 없이 볼 때마다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네신다.

무심코 혹은 정신없이 경비실 앞을 지나칠 때 갑자기 옆에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처음엔 깜짝 놀랐다. 아파트 주민들이 다들 그랬다.

처음에는 이분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파트 주민들과 친해지려고 그러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그렇게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셨다. 그제야 아파트 주민들은 이분 마음의 진정성을 알아차렸다.

박 선생님 덕분에 주민들에게 작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이젠 경비실 앞을 지나칠 때, 혹은 아파트단지 안에서 저만치 그분이 보일라치면 나도 미리 인사를 건넬 채비를 하게 됐다. 박 선생님이 인사를 주시기 전에 나이 어린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게 도리라는 생각부터, 혹시나 인사를 하셨는데 실수로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게 하려고 마음을 다지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먼저 인사를 건네는 데 인색했던 주민들이 하나둘 인사를 나누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박 선생님은 우리 아파트 주민들에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까지 선물해준 셈이다.

‘소비되는 것은 별로 없으나 즐거움을 주는 것이 많으며, 주는 사람에게는 해롭지 않으나 받는 사람에게는 넘친다.’ 데일 카네기의 ‘웃음 예찬’에서 웃음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웃음은 아무리 소비해도 줄어들지 않으니 웃을 수 있을 때 웃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경비 박 선생님을 볼 때면 정말 타고난 ‘웃음 전도사’라는 생각이 듈다.

이분, 그 마음의 진정성이 존경스럽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 주민들에게 밝은 인사라는 큰 선물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린다.

봇들공원에서의 안식년

지선향 분당구 삼평동

2020년을 맞기 전부터 공공연하게 ‘나의 2020년은 안식년’이란 말을 했다. 큰 아이에 이어 작은 아이도 원하는 직장에 출근하게 됐고 정년퇴직을 눈앞에 둔 남편도 여유롭게 직장을 다니고, 내 주변의 크고 작은 일들이 거의 정리가 돼 나의 일상에도 쉼표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중년에 접어들면서 나날이 두둑해지는 뱃살과 성인병 위험 때문에 피트니스에 등록하고 라인댄스를 하고 싶었다. 노안이 오기 전에 책을 쓸어놓고 맘껏 읽고 취미로 그리던 그림을 공모전에 출품해 작품을 평가받고 싶은 계획도 있었다. 예기치 않게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피트니스와 화실은 언제 열지 모르고 내가 사는 아파트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문자를 보고 더욱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 문득, 야심 차게 계획했던 나의 안식년이 이대로 끝날 것 같다는 절박한 생각이 들어서 텁블러 하나 달랑 들고 아파트 뒤 봇들공원을 산책하기로 했다. 공원에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초등학생과 가족, 동네 친구인 주부들, 테크노밸리에 근무 중인 회사원들이 도란도란 짹을 지어 산책 겸 운동을 하고 있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도 지팡이를 짚고 재활을 위해 힘겨운 산책을 하고 있었다.

아파트 뒤쪽에 이렇게 근사하고 멋진 산책로가 있음에도 차를 타고 멀리 떠나는 여행만을 꿈꿨다는 게 살짝 부끄러웠다. 아침에 가족이 모두 출근하면 나는 텁블러를 들고 봇들공원에 오른다. 계단을 하나씩 오르다보면 끼치와 다람쥐가 나뭇가지 사이를 뛰어다니고 운이 좋으면 고라니도 만날 수 있다. 공원 곳곳의 운동 시설에서 가벼운 근력운동을 하고 계단을 내려오면 1시간 남짓, 땀이 흐르고 숨이 턱까지 차오른다. 더이상 코로나를 탓하지 않고, 탁 트이고 맑은 공기와 나무의 푸르름을 느낄 수 있는 봇들공원 산책으로 나의 하루를 시작하게 됐다. 어느 초등학생의 시구처럼 ‘공기 마시는 거 공짜, 꽃향기 맡는 거 공짜, 하늘 보는 거 공짜, 바람 소리 듣는 거 공짜, 미소 짓는 거 공짜’. 봇들공원에 오면 마법처럼 모든 게 행복하고 즐거운 공짜가 된다.

*photo***신나는 연날리기**

이매동 탄천 둔치 잔디밭.

모처럼 밖으로 나온 형제가 연을 날리며 신나게 뛰어놀고 있다.

박희정 분당구 이매동

율동의 아침

세상은 시끄럽고 아파하는데, 어쩜 저렇게 여유롭고 평화로울 수가 있는지… 잠깐의 힐링이 돼 주니 고마울 뿐이다.

문미라 분당구 서현동

재개발을 앞둔 마을, 상대원2동

가파른 언덕 위서 동네를 살피는 ‘대화세탁소’

취재 윤해인 기자 yoonh1107@naver.com, 박인경 기자 ikpark9420@hanmail.net

“슬레이트집, 기와집이 허물어지고 3층짜리 단독주택이 하나둘 들어섰다. 질퍽한 흙길이 시멘트로 포장되고, 드디어 세탁소 앞 언덕으로 마을버스가 다니기 시작했다. 순간 가슴이 벅찰 만큼 기분이 좋았다”는 상대원2동 대화세탁소 박문숙(66) 사장.

1984년, 대원초등학교 위 언덕에 자리를 잡을 당시엔 상대원시장에서부터 흙길을 걸어서 언덕을 올라야 했다. 흙길이 시멘트 포장길로, 다시 아스팔트 길로 변하면서 이사 올 때는 없던 새 건물들이 하나씩 들어서 자리를 잡았다. 등하고 시간에는 아이들이 무리 지어 오르내렸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은 볼 수 없다. 눈에 익숙하던 문방구도 복덕방도 없어졌다. 재봉틀 돌리며, 다림질하며 바라본 거리 풍경은 이제 예전과 다르다. 박문숙 사장은 “손 매무새 아무지단 소릴 들으며 19세 때부터 집에서 사람들의 옷을 수선해줬다. 결혼 전에는 의상실을 운영할 정도였다. 타고난 재주랄까, 천직일까.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재봉틀과 빨랫감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장소에 ‘대화세탁소’란 이름을 걸고 세탁업을 시작한 건 35년 전 일”이라며 박 사장이 그동안의 시간을 풀어놓았다. 세탁소 안은 기계 세탁기에서 컴퓨터 세탁기로 기계만 바뀌었을 뿐 지난 시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개업할 때부터 사용하고 있다는 재봉틀은 여전히 제 일을 하고 있고 수선용 가위와 반진고리도 여전하다. 불처럼 활활 타올라 번창 하라고 개업식 때 누군가 사 들고 온 성냥갑도 가게 한쪽에 놓여 있다.

세탁소 천장 옷걸이에 겨울옷들이 비닐에 싸여 걸려 있다. 20평 분양지로 이뤄진 마을의 특성상 집이 협소하다 보니 겨울옷은 세탁소에 맡긴 후 보관했다가 다음해 겨울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웃의 상황을 고려해 가게에 두꺼운 옷을 보관해 주는 게 오래된 세탁소만의 인심이다.

대화세탁소는 세탁과 수선만 하는 곳이 아니었다. 통장으로 일하던 박 사장은 동네 어려운 처지의 이웃을 위해 앞장서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조부모 가정 아이들, 병원비가 모자란 이웃에게도 박 사장의 마음이 달았다.

세탁소 바깥 풍경은 70~80년대를 그린 영화 속 풍경과 비슷하다. 세탁소 앞에 세탁이 끝난 옷들이 바람에 마르고 있다. 세탁소 창에 쓰인 문구도 예스럽다. 영화 속에서 종종 보던 세탁소 옷을 빌려 가던 사람은 없었을까?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닌 듯, 옷을 빌리러 온 사람은 있었지만 손님이 맡긴 옷을 빌려줄 수는 없었다고 한다.

옷을 아껴 늘리고 줄여 입던 시절은 지났다. 지금은 싸게 사서 한두 해 입고 버리는 사람이 많다. 인구 감소와 프랜차이즈 세탁전문점, 셀프세탁방의 등장은 일반세탁소의 불황으로 이어졌다.

“세탁소가 문을 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분이 계세요. 0.3~0.5cm의 길이에도 민감한 분이 계시는데 저를 믿고 찾아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하죠. 깨끗하게, 반듯하게 세탁해서 돌려드린다는 게 보람 있고 좋아요.”

상대원2동은 재개발사업으로 곧 이주가 시작된다. 같은 길을 걷던 주민들이 하나둘 이사를 가 주민 수가 많이 줄었다. 일감이 줄었지만 사는 동안에는 세탁일을 놓지 않을 생각이다.



02



03



04



05

01 상대원 2동에 위치한 대화세탁소 전경 02 35년 전 개업식 때 들어온 성냥갑 03 대화세탁소 앞에서 본 상대원시장 풍경 04 빼곡한 실패들 05 35년의 시간을 풀어놓는 박문숙 사장(오른쪽)



이 지면은 재개발로 사라져가는 성남의 모습을 시민과 함께 추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주변에 30년 이상 오래된 이색가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착한가게, 장인 등이 있으면 비전성남 편집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729-2076~8